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국가공인 매경 TEST
청소년 경제·경영 신문

틴 Teen 매일경제

teen.mk.co.kr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 소득 늘려 경제 살린다더니 왜 빈부격차 더 커질까?

Cover Story 소득주도성장 논란




최근 고용·소득 분배가 악화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취업자 수는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1년 전인 지난해 7월(31만4000명 증가)에 비해 급감했다.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든 것을 비롯해 2분위(하위 20~40%) 2.1%, 3분위(상위 40~60%)는 0.1% 감소한 반면 소득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4.9%, 10.3% 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같은 '성적표'를 놓고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것을 소득분배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다소 진통이 있지만 이것은 상생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일시적 과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기존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체제, 승자 독식 경제체제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이 함께 경제성장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경제학적 개념 정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소득주도성장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다.

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경제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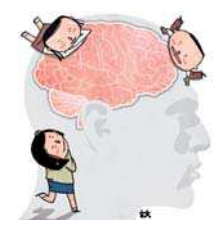
## INSIDE




4·5 Cover Story
소득주도성장 대해부



6 고전문학
자연을 노래한 강호詩



12 신비한 뇌
공부 더 잘하려면…

# 25회·27회…틴매테 대상 휩쓴 이소연 양

〈천안여상〉

지난달 18일 열린 제27회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정기시험에서 천안여상 2학년 이소연 양이 97점을 얻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양은 이번 시험에서 지난 26회 대상 수상자인 이무결 군(부산정보고 2학년)을 4.5점 차로 제쳤다. 이양은 틴매일경제 학생기자로 활동하면서 지난 25회 틴매경TEST(틴매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양은 "틴매테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한다"며 "이전 시험 때 '다음 시험에서도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는데, 또다시 대상을 받게 돼 기분이 묘하면서도 무척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은 삼일상고 3학년 김예림 양, 대전신일여고 2학년 김지연 양, 용인정보고 2학년 남유현 양, 부산정보고 2학년 이무결 군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대구제일여상 2학년 박수현 양, 대성여상 2학년 박유빈 양, 부산동고 2학년 손경민 군, 삼일상고 1학년 이현준 군 등 8명이 수상했다.

개인전 수상자 중 유일한 인문계고 출신인 손군은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아 수능 사회탐구에서도 경제 과목을 선택했다"며 "나의 경제 지식 수준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틴매테에 응시하게 됐다"고 응시 동기를 설명했다. 상경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손군은 이어 "경제 영역은 평소 학교 경제 과목 시험을 준비하듯이 공부했으며 금융 영역은 틴매테 기본서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틴매테 준비반을 개설해 매주 2회 이상 꾸준히 공부했다는 이현준 군은 고등학교 2~3학년 선배들 사이에서 당당히 우수상을 차지한 1학년 신입생이다. 이 군은 "금융 영역에 자신 있어 이번에 다소 소홀히 했다 큰코다쳤다. 그래서 평소 자신 있던 경제 영역도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졸업 후 자산운용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군은 "다음 시험에서는 꼭 최우수상 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함께 진행된 동아리 최강전에서는 대전신일여고 '신일 Sinergy(김지연·박보영·이주연·조성은·한고은)'가 지난 26회에 이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광주여상 '이코노베이션', 삼일상고, 천안여상 '고도리'가, 우수상은 BNK부산은행 '주니어 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대구제일여상, 대성여상, 대전여상, 전남여상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틴매테 평균 점수는 지난 회보다 7점 상승한 55.5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경제 24.9점(50점 만점), 금융 30.6점(50점 만점)으로 지난 회보다 각각 3.6점, 3.4점 올랐다. 틴매테 사무국 관계자는 "방학 동안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를 개설해 틴매테에 대비한 학교들이 많아 시험 응시 인원도 지난 회보다 크게 늘었다"며 "경제·금융 과목을 충분히 학습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평균 점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다음 틴매테 시험은 11월 17일 열리는 제28회 정기시험으로 다음달 1일부터 매경테스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유태형·장동익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이소연


김예림


김지연


남유현


이무결

**제27회 틴매경TEST 개인전 수상자**

| 구분 | 성명 | 소속 |
|---|---|---|
| 대상 | 이소연 | 천안여상 2 |
| 최우수상 | 김예림 | 삼일상고 3 |
| | 김지연 | 대전신일여고 2 |
| | 남유현 | 용인정보고 2 |
| | 이무결 | 부산정보고 2 |
| 우수상 | 박수현 | 대구제일여상 2 |
| | 박유빈 | 대성여상 2 |
| | 손경민 | 부산동고 2 |
| | 이현준 | 삼일상고 1 |
| | 장유화 | 광주여상 2 |
| | 조성은 | 대전신일여고 2 |
| | 지수연 | 천안여상 2 |
| | 한고은 | 대전신일여고 2 |

**제27회 틴매경TEST 동아리 최강전 수상자** (가나다순)

| 구분 | 단체 | 수상자 |
|---|---|---|
| 대상 | 대전신일여고 | 김지연 박보영 이주연 조성은 한고은 |
| 최우수상 | 광주여상 | 김예슬 박상이 이승희 장유화 조효정 |
| | 삼일상고 | 권주영 김예림 이수민 이현준 한현주 |
| | 천안여상 | 김동희 배세의 서윤진 이소연 지수연 |
| 우수상 | BNK부산은행 | 문희지 박은영 이예림 임선미 최예지 |
| | 대구제일여상 | 강지영 권혜영 박수현 박정은 윤지현 |
| | 대전여상 | 류민영 박서은 양희주 장윤정 최솔 |
| | 대성여상 | 김다미 박유빈 이민지 최예니 최지인 |
| | 전남여상 | 공다희 박은솔 안소원 이다빈 이수현 최나라 |

**우수상 중 유일한 高1**
**이현준 "매주 2회이상 공부"**

**평균점수는 7점 상승**
**응시인원도 크게 늘어**

**동아리 최강전에서는**
**대전 신일여고가 대상**

청소년 경제·경영 신문
틴 Teen 매일경제
매일경제·금융저축정보센터 공동 기획

| | |
|---|---|
| 발행·편집·인쇄인 | 장대환 |
| 편집국장 | 서양원 |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편집국 경제경영연구소 | (02)2000-2408 |
| 이메일 : teen@mk.co.kr | |
| 홈페이지 : teen.mk.co.kr | |
| 구독문의 | (02)2000-2383 |
| 광고문의 | (02)2000-2200 |


알립니다

## 10월 6일 매경TEST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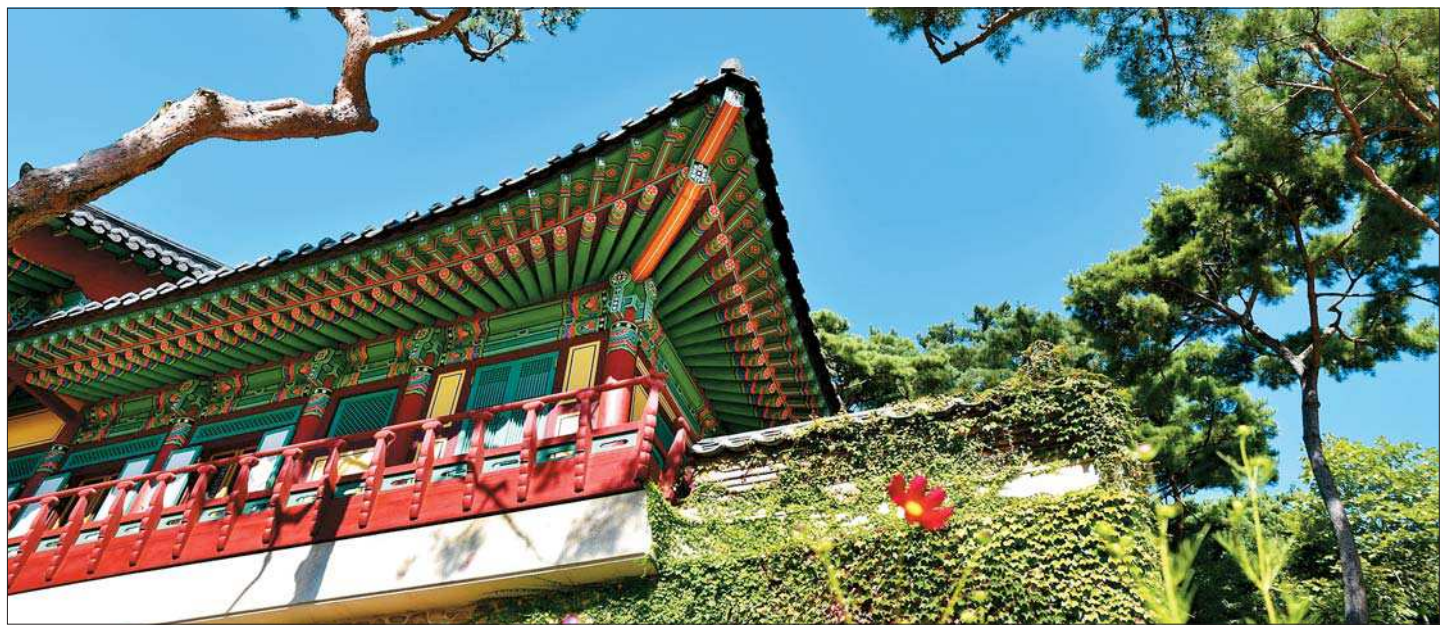
국가공인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매경TEST는 대기업과 금융사, 공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우수·우수 등급 취득 시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 가능합니다.

◇**시험일**=2018년 10월 6일(토) ◇**접수**=2018년 9월 26일(수) 자정까지 mktest.org
◇**응시료**=3만원(20명 이상 2만5,000원), 중·고교생 2만원, 군인 1만5,000원
◇**만점(문항)**=1000점(경제·경영 각각 40문항)
※문의=(02)2000-2408 **매일경제신문사**

**틴매경 구독 신청하세요** (02)2000-2383 / teen@mk.co.kr

후원 :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KYOBO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MERITZ 메리츠화재

# 신미양요 격전지 강화도, 의병의 외침이 들리는듯



강화도 전등사



신익수 기자의

**미디어속 인문학 여행**

❶ 미스터 선샤인과 강화도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여기까지 하고도 감이 안오신다면 '도깨비'까지. 명불허전 드라마 작가 김은숙의 신작으로 또 한번 관심을 끈 '미스터 션샤인'(이병헌 주연)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신미양요'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그 덕에 요즘 강화여행이 '핫'해졌습니다. 초지진, 전등사에 이어 신미양요의 주인공 어재연 장군의 광성진(광성보)까지. 이 가을, 잠깐 '최유진(유진 초이·Eugene Choi)'이 되어 긴박했던, 하지만 미스터리해서 더 끌리는 그 현장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 최강 몽골, 30년간 폭 1㎞ 바다를 못 넘은 까닭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를 가르는 좁은 해협. 자동차에 올라 다리(강화대교·초지교)를 통해 그냥 무심코 강화로 접어들었던 그 아래입니다. 한반도 배꼽 위치에 절묘하게 놓인, 길이가 1㎞ 남짓한 이 좁은 해협. 이게 사실 놀라운 근대사의 현장입니다. 물리적 거리야 1㎞밖에 안 되는데, 심적 거리가 무한대에 가까웠다면 믿어지시나요.

애칭은 염하(鹽河) 입니다. 바다인데, 강을 닮았다 이르는 말입니다. 폭이 1㎞도 채 되지 않는 이 강화해협, 이걸 세계 최강 몽골군조차 어쩌지 못하고 30년 이상 발을 구르도록 만들었으니 말 다했습니다. 고려가 몽골의 침공을 피해 강화로 천도(遷都)한 것은 1236년 7월. 역사책에 나오듯 200년 도읍지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했던 고려는 이후 천연의 요새인 강화에 머물면서 34년간 몽골에 대항합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필 강화해협이 외침의 루트가 됐던 걸까요. 몽골 때도 그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조선의 개항으로 이어진 운요호 사건까지 모든 외침의 루트가 하필이면 이곳입니다. 역사학자나 지리학자들은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을 지적하지요. 강화는 한강과 예성강 그리고 임진강 등 세 개의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입구였으니까요. 북으로는 개성과 개풍, 서로는 바로 한강에 닿는 문수산성(文殊山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물리적 거리 1㎞. 대충 건너도 될 것 같은 이 해협이, 그렇게 넘기 힘들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울돌목 같은 '손돌목(孫乭項)'입니다. 신미양요 때 끝까지 저항했던 군사요충지 광성보(廣城堡) 근처 강화해협에는 손돌목의 급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강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배들이 손돌목 수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물때와 바람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이곳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돌목 앞에 대기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이 손돌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좁은 곳은 200~300m, 제일 넓은 곳이 1㎞ 정도. 최대 유속은 초속 약 3.5m에 달합니다. 바닥은 바위층이고 돌부리가 많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배들이 암초에 부딪쳐 난파되기 일쑤였지요.

천혜의 수중 요새 같은 이 손돌목. 급한 조류가 일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곳은 수중 침투를 위한 군사훈련 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자전거로 반나절에 끝내는 강화여행**

역사적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나들이를 한번 해 볼까요. 요즘 이런 역사의 현장을 편히 둘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특히 명불허전 코스가 됩니다. 강화군이 정성껏 만들어 넣은 19곳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중 가장 으뜸인 코스가 해안순환도로를 따라 대산리에서부터 길상면 섬암교까지 이르는 루트입니다. 강화도 서쪽 해안을 따라 무려 21.1㎞를 달리는 이 길은 연미정을 지나 갑곶돈대, 화도돈대, 초지진, 월곶돈대, 용진진, 광성보를 지납니다.

포인트 하나하나가 아픈 외침의 흔적들입니다. 갑곶돈대는 몽골과의 항쟁 때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 요새였지요. 물의 벽에 번번이 막혔던 몽골군은 '우리 군사들의 갑옷으로 바다를 메워서라도 건너갈 수 있을 텐데'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덕에 뜬 곳이 초지진과 광성보입니다. 초지진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효종 시기에 지어진 요새입니다. 조선 말 외세의 침입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 한양의 방어진이었지요.

성곽 둘레가 500m도 되지 않은 작은 규모지만 프랑스 함대가 침략한 병인양요(1966년), 미국 함대가 침략한 신미양요(1871년), 일본의 불법 침입 사건인 운요호 사건(1875년) 등 개화기를 관통하는 주요 사건이 일어난 격전지였으니 꼭 한번 둘러봐야겠지요. 광성보는 신미양요의 현장입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때 지어진 성인데, 신미양요 때는 어재연 장군이 미국과 맞서 싸워 순국한 곳으로 유명하지요. 광성보에는 광성돈대, 안해루, 쌍충비각까지 SNS 인증샷 명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때 끝까지 저항했던 군사요충지 '광성보' 조류 급해 수중 요새로 작은 성곽 '초지진'도 볼만**

**강화도 21㎞ 해안도로 자전거 여행하기 좋아**



**▶강화 자전거 나들이 Tip**

강화도는 고인돌, 초지진, 마니산 등이 있는, 섬 자체가 박물관이다. 자전거 코스는 모두 19루트. 백미로 꼽히는 해안선 도로는 90㎞가량이다. 초지대교를 지나 섬 남쪽으로 향하면 영종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상세 정보는 강화 자전거 코스 홈페이지(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trip/bike/all.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족집게 지식**

'미미광어'라는 네 글자를 외워두실 것. 강화 하면 꼭 등장하는 신미양요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족집게 공식이다. 한국사 일타강사 설민석 씨가 만들어낸 신미양요 암기법. 하나하나의 뜻은 이렇다. 첫 번째 '미'는 '미국이 쳐들어온 것'. 두 번째 '미'는 신'미'양요라는 의미. '광'은 신미양요 격전의 현장 '광어진'이다. 마지막 '어'는 이곳에서 순국한 '어재연 장군'. 꼭 외워두시고 써먹으실 것.

Cover Story

뜨거운 감자 소득주도성장

# 가계소득 높여 소비증가 선순환 기대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골자는 '평균소비성향(용어설명 참조)'이 큰 저소득층·빈곤층 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소비지출을 늘리면 생산활동이 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해 분배되는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이러한 선순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얼핏 20세기 초엽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던 케인스(J M Keynes·용어설명)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케인스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케인스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자. 케인스는 불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봤다. 생산시설·장비 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부진이 생산활동과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 시기 미국 테네시강 개발공사로 대표되는 '뉴딜정책(the New Deal Policy·용어설명)'은 이러한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면 이는 '소비여력 증가→소비지출 증가→공장 가동률 증가→생산 증가→국민소득 증가→소비여력 증가'라는 국민소득 증가의 선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불황의 원인이 수요 측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도 수요 증가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른바 '케인스식(式) 처방'의 요지는 통화정책(금리·통화량 조절)·재정정책(조세·정부지출·이전지출)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가령 정부가 근로자 한 명을 추가 채용해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면 연쇄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물가 등 조건 변화가 없을 때 100만원을 받은 근로자는 소득의 20%를 저축하고 80만원은 소비로 지출하면 이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며, 다시 이것은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A, B, C, …'가 있을 때 정부가 A에게 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정부지출 100만원은 '100만원→80만원→64만원→51.2만원…'이라는 연쇄 반응에 의해 500만원 규모 소비지출로 이어진다. (표 참조)

**정부지출 확대 따른 소비지출 증가** (단위=만원)

| 구분 | 정부 | A | B | C | … | 합계 |
|---|---|---|---|---|---|---|
| 소비지출 | 100 | 80 | 64 | 51.2 | … | 500 |

그리고 소비지출 증가는 생산활동 증가로 이어져 국민소득 증가로 연결된다. 즉 최초 정부지출 100만원이 국민소득 500만원을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연쇄 효과는 소비(저축) 성향이 클(작을)수록 더 증폭된다. 가령 근로자가 소득의 50%를 저축한다면 '100만원→50만원→25만원→12.5만원→…'이라는 연쇄 반응에 의해 200만원의 소비지출만 창출할 것이다. 5면에 계속

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 혁신성장은 뭔가요?…규제 확 풀어 미래산업 키우는거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수출주도성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정책이 제시된다. 수없이 거론되는 성장론(정책)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경제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사실 오랜 경제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조차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경기 변동과 경제성장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기 변동은 4~7년 단위로 호황·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성장은 30~40년간 장기에 걸쳐 생산량(생산량은 주로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된다)이 변화하는 양상을 뜻한다. 즉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장기 추세며 경기 변동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상(호황)·하(불황)로 움직이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정부지출을 늘리는 '케인스식(式) 처방'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불황(호황)일 때 통화 팽창(축소)이나 재정지출 확대(축소) 등을 시행해서 경기를 부양(진정)시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를 뜻하며 생산량은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노동력·물적자본·인적자본·토지)이나 생산성(과학기술·효율성·지식자본)이 늘어날 때 증가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공급과 관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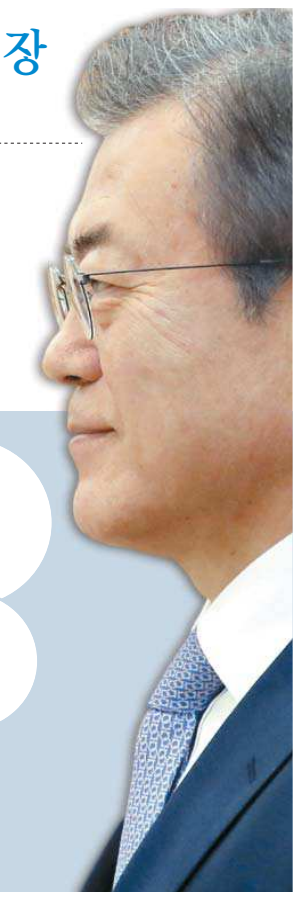
경제성장 초기에는 '노동력 증가→임금소득 증가→저축 증가→물적자본 축적→임금소득 증가→저축 증가…' 과정을 거쳐 물적자본(기계 등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시설)을 축적해 생산물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국민소득으로 적절히 분배된다. 이때 높은 저축률은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물적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된 뒤에는 인적자본과 생산성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된다. 선진국으로 근접할수록 인적자본·지식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문화·연구개발 등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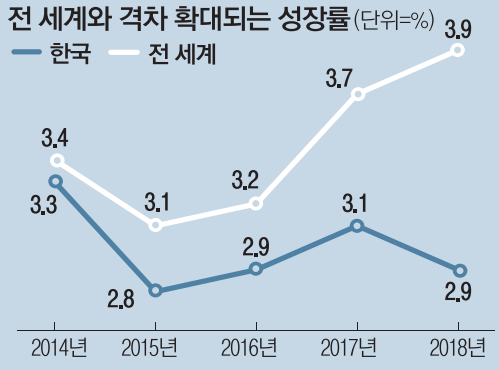
한편 수출주도성장이란 국내 시장 구매력이 부족할 때 수출(해외 수요)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량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꾀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 또는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혁신성장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제도·규제 등을 혁신해 성장동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혁신'은 앞서 언급한 경제성장 요인에서 생산성 제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생산량 증가→국민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제성장 모형으로 볼 수 있다. 혁신성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제성장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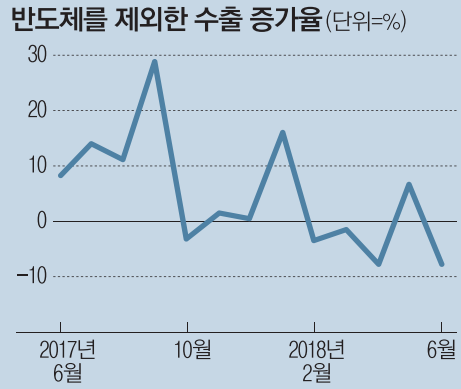
뜨거운 감자 소득주도성장

# 단기 분배처방… 성장정책과는 큰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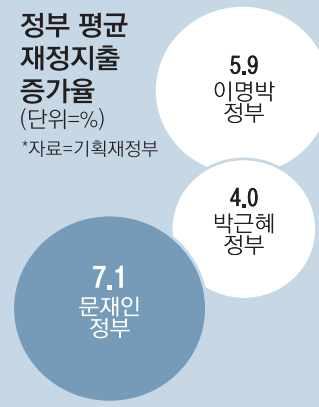





*2018년 전망치는 한국 정부, 전 세계는 IMF 추정.
자료=기획재정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4면서 계속

그러나 이 과정은 정부의 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 부담과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억제된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연쇄 반응은 이러한 요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대부분 상쇄된다.

최초 1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와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각각 처분가능소득과 실질구매력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인스식 처방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 즉 불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소비·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이지 국민소득 증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성장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번 양보해 케인스식 처방이 단기 대책인지 장기 성장정책인지 따지는 것을 떠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 효과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만약 고용이 유지된다면 이러한 정책은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일부분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채산성 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부터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은 대체로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기대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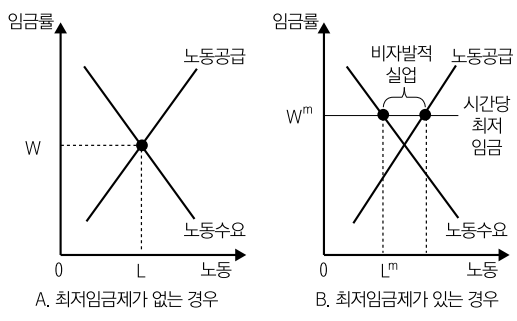
즉 '인건비·생산비용 상승→기업 경쟁력 감소→일자리 감소→근로자 소득 감소→소비지출 감소→기업채산성 감소→일자리 감소→…'의 부정적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논지는 근로자 소득 증가에서 비롯되는 긍정적 연쇄 효과(분수효과·fountain effect)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과 생산비용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불황에 대한 단기 대책인 케인스식 처방을 성장정책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주류 경제학 관점과 큰 괴리가 있다.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의 단기적 변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경제성장은 생산 요소(노동력·물적자본·인적자본·토지) 투입 증가와 생산성(과학기술·효율성·지식)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하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은 성장정책이라 볼 수 없으며 분배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일자리 감소 부메랑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임금을 일정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전통적인 견해다. 아래 그림은 노동시장 균형을 최저임금제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 나타낸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시간당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비자발적 실업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제 고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엇갈린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95년 프린스턴대의 젊은 경제학자였던 카드(D Card)와 크루거(A B Krueger)는 미국 뉴저지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18.8% 인상하자 패스트푸드점의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주류 경제학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 뉴저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의 미세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마크(D Newmark)와 와셔(W Washer)는 앞선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것은 향후 20년간 '카드와 크루거' 대 '뉴마크와 와셔' 논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2011년 뉴마크와 와셔는 카드와 크루거의 데이터를 일부 받아들여 분석을 시도해 최저임금 인상은 비교적 작은 규모 영업장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비교적 큰 규모 영업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약자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과 청년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음식·숙박 등 서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어 '고용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유례없이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량 인상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강호詩,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에 담다



전현선 교사의
고전문학 감상



금강산 〈매경DB〉

우리는 시나 소설을 가까이 하고 즐기는 사람에게 '문학소녀' 또는 '문학소년'이라는 별칭을 붙여준다. 그런데 이때 '문학'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대부분 당연하게도 현대문학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시조나 고전소설과 같은 고전문학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흔히 보기는 힘들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이 창작된 '시대'를 잣대로 문학을 얼마나 많이 차별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가 현대문학에 비해 고전문학, 특히 고전시가를 멀리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가장 흔한 소재 자연(강호)**

**옛 사람들이 향유했던 고전문학**

**그중에 자연의 아름다움 표현한**

**시조·가사를 강호시가로 지칭**

**마음으로 자연을 보자**

**해마다 꽃이 피고 눈이 오고…**

**자연은 약속을 어기는 일 없고**

**혼탁한 사람들의 세상보다**

**어쩌면 더 고귀한 존재이기도**

**선조들의 노래에 푹 빠져보자**

고전시가를 읽고 감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가장 먼저 옛말과 한자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운 고어(古語) 해석의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현대문학과는 다소 다른 소재와 인식 때문에 작품 감상에 한계를 느낀다. 이러한 어려움은 때때로 반감으로 나아간다. 더군다나 시험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전시가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 이 반감은 더 커져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외국어 같은 시조를 도대체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투정으로까지 나아간다.

우리가 배우는 고전시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조와 가사는 고려시대 말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대략 600여 년의 시간적 격차를 갖는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다른 쪽에는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말도 있지만, 십 년의 몇 곱절이 넘는 600여 년이라는 시간적인 격차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장벽이다. 아주 먼 옛날 선조들이 향유했던 작품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생경함을 느끼고 혼란스럽다.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건너서 우리에게 도착한 이 낯선 얼굴의 노랫말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 할까.

고전시가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와는 다른 옛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조와 가사에서 가장 흔한 소재는 자연이다. 많은 작품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거나 자연에서 느끼는 흥겨움을 자랑하고 있다. 자연을 소재로 한 고전시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묶어서 '강호시가(江湖詩歌)'라고 부르기도 한다. 강과 호수를 자연물을 대표로 뽑아, 관습적으로 자연을 '강호(江湖)'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동받는 경우가 드물다. 강, 산, 달과 같은 자연물 말고도 우리에게는 보고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각종 영상과 음악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그것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목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영상과 오락들 사이에서, 자연에 눈길을 줄 여력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은 옛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어른들의 전유물로 취급된다.

하지만 단순히 옛사람들은 우리보다 보고 즐길 것이 적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낀 것일까. 단적으로 선조들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쉽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옛사람들은 자연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것에 '가치'를 부여했다. 자연은 한자어로 스스로 자(自)와 그러할 연(然)이다. 뜻을 풀면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스스로 그러함의 가치를 지닌다. 이 가치는 사람과 자연을 대비시킬 때 더 커진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변덕을 부린다. 하지만 자연은 봄이 되면 늘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언제나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세상을 눈으로 하얗게 만든다.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늘 이런 일을 반복한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속성에 감동하여, 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자 노력했다. 자연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속에서 보고 즐기며 배우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고전시가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노랫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작품 속 화자는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먼지 같은 혼탁한 세상을 떠나 늘 한결같은 자연에 머물며 그 가치를 배우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계절에 따라 새 옷을 입는 나무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달, 언제나 곧게 서 있는 대나무, 이 모든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존경했다. 자연물을 배우고 존경하며 닮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강호(江湖)를 재료로 삼아 노래 부르는 시가문학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양주고 교사〉

---

**▶조선 중기 문인 이현보(1467~1555)의 작품**

> 농암(聾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 인사(人事)이 변(變)훈들 산천(山川)이야 가실가
> 암전(巖前)에 모수모구(某水某丘)이 어제 본 듯 ᄒᆞ예라

농암이라는 바위에 올라갔더니, 늙은이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서는 '사람'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다. 인간의 일은 변하더라고 산천으로 대표되는 자연은 늘 변함이 없다고 하며, 바위 아래 물과 바위가 어제 본 듯 그대로 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옛 선조들은 이렇게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고 존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떠한가. 선조들이 가져왔던 존경심과는 거리가 멀다. 자연은 개발을 위해 파괴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 자체로 존경받던 것에서,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파괴되거나 보존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어쩌면 자연이 가진 '늘 그러함'의 가치가 다시금 절실해지는 강호시(江湖詩)의 시대가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 자연 속에서의 흥겨움을 자랑하는 고전시가를 읽고, 진심으로 옛사람들이 부러워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전문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무서운 날들이 올 수도 있다. 고전시가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 후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문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 끔찍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늘 만끽할 수 있도록, 옛사람들처럼 다시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600여 년의 긴 시간을 견디고 우리 앞에 나타난 옛사람들의 노랫말과 가깝게 지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중국땅 요서가 백제 식민지였다? 해석은 분분



배한철 기자의
한국사 이야기

**中역사서 들여다보면**
**"요서가 백제 영토에 속한다"**
**여러 고서에 사실로 기록돼**
**해상 전진무역기지 역할에**
**배후에서 고구려 견제 의도**
**근구수왕 때로 추정되기도**

**日학자들 "사실 아니다"**
**당시 요서는 연나라가 지배**
**현지 지명도 확인 안된 허구**




양직공도 속 백제사신. '백제가 요서에 진평현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다. 중국 난징박물관 소장.

"백제는 마한에서 시작된 나라다. 중국 진나라 말기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낙랑 역시 요서에 진평현을 설치하였다. 고구려의 침공을 여러 번 받았지만 양무제 때 무령왕이 사신을 보내와 '고구려를 여러 차례 무찔렀다'고 말했다. 지방을 22개의 담로로 나눠 왕의 아들이나 왕족들에게 다스리게 했으며 주변의 작은 나라인 반파, 탁, 다라, 전라, 시라, 지미, 마연, 상사문, 하침라 등이 백제에 속해 있다. 언어와 의복은 고구려와 거의 같다."

중국 난징박물관에 소장된 '양직공도'에 쓰인 글이다. 양직공도는 6세기 양나라(502~557) 때 제작됐으며 중국을 찾은 백제, 왜 등 외국 사신의 모습과 그 나라의 풍습 등이 소개된 화첩이다. 현존하는 그림은 6세기 제작된 원본을 북송(960~1127) 때인 1077년 모사한 것이다. 애초 25개국 정도의 사신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12개국 사신의 모습만 남아 있다.

'백제국사'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과 이에 대한 서술은 6세기 초 웅진시대 백제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다. 백제의 사신 초상은 현존하는 회화 자료 중 유일하게 백제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낙랑이 지금의 랴오닝성 서쪽인 요서지역을 다스렸다는 대목이다. 이 글을 쓴 인물은 백제와 낙랑을 혼동하고 있다. 중국 고대 문헌에는 우리 민족을 낙랑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글에서 진나라는 동진으로 보인다.

중국 대륙을 침략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한 한민족의 역사에서 백제가 과연 중국에 식민지를 둔 게 사실일까. 만일 중국에 백제 영토가 있었다면 얼마간 존속했을까.

백제의 요서를 경영한 사실은 '양직공도'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국 역사서에서 발견된다. '남사'의 백제전에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1000여 리 밖에 있었다. 진나라 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자 백제 역시 요서, 진평 두 군의 땅을 점거해 백제군을 설치하였다"라고 기술돼 있다. '양직공도'와 판박이다.

'주서' 백제전에는 "백제의 국경이 바다 건너까지 미친다"라고 돼 있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동북으로 신라에,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왜에,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구당서' 백제전도 이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송서' '이만열전' '양서' '남제서' '통전' 등에도 요서가 백제 영토에 속한다고 돼 있다.

신라 말 최치원도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 강병이 100만명이나 되어 남쪽으로는 오월을 침공했고 북으로는 유, 연과 제, 노를 괴롭혀 중국의 커다란 좀이 되었다"라고 서술했다. 민족사학자 신채호는 "백제의 요서 경영은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왕(재위 375~384) 때의 일이며 위치는 요동, 산동, 강소, 절강을 포함하는 광활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 다만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는 찾을 수 있다. 동성왕 18년(488) 조의 "북위가 군사를 보내 쳐들어 왔으나 백제에 패했다"라는 기록의 그것이다. 유목민족이 세운 북위(386~534)는 하, 북연, 북량을 멸망시켜 5호16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 강북 지역을 통일했다. 북위는 고구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다. 유목 국가가 바다를 건너왔을리 만무하며 고구려를 통과해 백제로 쳐들어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위는 중국의 백제 영토를 침범한 것이다.

중국은 4세기 초부터 100여 년 동안 5호16국 시대로 불리며 혼란과 분열을 거듭했다. 북쪽에서는 흉노, 선비, 갈, 강, 저 등 북방민족의 13개국이, 남쪽에서는 한족 계통의 3개국이 패권 다툼을 하며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백제의 대륙 진출은 중국 대륙의 혼란기를 틈 타 고구려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이와 더불어 요서를 해상 전진무역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서로 가는 길목인 요동을 고려가 지배하고 있어 백제가 만일 요서를 식민지로 삼았다면 해로를 통해 건너갔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 백제에는 '방(舫)'이라 불리는 큰 배가 존재했다. 이 배는 '크고 튼튼한 선박'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백제는 우수한 선박을 만들었고 뛰어난 항해 기술을 이용해 동남아시아는 물론 인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고 여러 사서에 적혀 있다.

반론도 만만찮다.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백제의 요서 경략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삼국사기 동성왕조 기록에 대해 이케우 이로시 전 도쿄대 교수는 "동성왕이 북위의 적국인 남제에서 관직을 제수받기 위해 허구를 꾸민 것"이라고 했다. 와다 하카토코라는 학자는 "진나라 시대의 요서는 5호16국의 하나인 선비족 모용씨의 연나라가 지배하고 있어 백제가 침투할 만큼 힘의 공백 상태가 아니었으며 더욱이 백제가 지배했다는 진평군 진평형은 어디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괴이한 지명"이라고 폄훼했다.

요서 경략의 주체가 백제가 아닌 다른 세력인데 잘못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 국내 학자도 있다. 이들은 낙랑 또는 부여와 관련된 세력으로 추측한다. 백제에 요서 경영에 대해 '삼국사기'의 기록이 없고 또한 백제인이 요서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고고학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많은 중국 사서들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시 백제는 강대국인 고구려에 쳐들어가 수도인 평양성을 점령할 만큼 최강의 전성기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근초고왕은 태자(근수구왕)와 함께 정예군 3만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으며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살해하기까지 했다.

5호16국이라는 분열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던 중국의 변방을 백제가 차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배한철 기자



최병일 박사의
말랑말랑 경제학

# 기술진보가 가져온 가격급락과 실직의 문제



## '소금'의 경제학

지난 4월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 정치·경제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회담으로 이른바 북한 특수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의 평양냉면집이 손에 꼽히는 수혜자일 것이다. 회담 후 남북 대표가 평양냉면을 먹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는데,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그 음식 맛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감과 호기심이 극대화됐다. 그 결과 평소 평양냉면을 먹지 않던 사람들도 찾으면서 서울시내 유명 평양냉면집들은 문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런데 전부터 평양냉면을 즐겨 먹던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호기심에 평양냉면을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도 먹고 난 후 '호불호'가 갈렸을 것이다. 완곡하게 표현해서 호불호가 갈린 것이지, 처음 먹어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게 대체 무슨 맛이지' '싱겁고 밍밍한 이런 국물을 왜 정상들이 먹었고, 일반 냉면보다 비싼 돈을 내고 줄까지 서서 기다리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당 음식들은 평양냉면처럼 심심하기보다는 달고 짠 자극적인 맛이 대부분이다. 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서울·경기 지역 음식들은 지금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했다고 한다. 이들은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요식업 시장 규모가 확대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미료와 소금 간을 과하게 사용하는 식당이 늘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요식업계의 이 같은 풍토는 자극적인 맛으로 손님을 유인하려는 식당 사장님들의 전략도 주요한 원인이지만, 기술 발전으로 소금을 비롯한 조미료 생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소금은 음식물을 저장하고 맛을 내기 위한 필수 조미료다. 그뿐만 아니라 소금은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무기질로 필요한 양보다 부족할 때는 신진대사가 위축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 과거 인류는 이처럼 귀한 소금을 바닷가나 암염(岩鹽)에서 얻었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어서 소금은 역사적으로 귀한 상품으로 통용됐다.

**산업화·도시화 진행되며**
**요식업 등 경쟁 치열해져**
**조미료·소금 간을 과하게 해**
**자극적인 맛으로 고객 끌어**

**천일염 대량생산 기술로**
**소금 생산량 기하급수적 증가**
**생산가격은 상대적으로 급락**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많은 직업 컴퓨터·로봇이 대체**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하락·실업 현실화 돼**

인간이 소금을 창조할 수 없던 시절 소금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로 천일염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되고, 화학적으로 소금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소금의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소금 소비에 부과하던 염세(鹽稅)까지 폐지돼 소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전쟁이나 폭동의 원인이 될 만큼 귀했던 소금이 이제는 제설작업에 사용될 정도로 흔한 물질이 됐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금 산업과 같이 기술의 진보로 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상품의 사례는 산업화 이후 쉽게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미국의 청바지 가격은 당시 미용실 커트 비용의 13배였으나 2010년 청바지 가격은 커트 비용의 1.5배 수준으로 하락했다. 컴퓨터 역시 같은 성능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했을 때 2010년 컴퓨터 가격은 1980년 가격의 6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해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들은 채산성이 악화돼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컴퓨터나 기계로 대체하기 용이했던 비숙련 노동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거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술 진보는 숙련편향적 기술 진보(SBTC·Skill Based Technological Change)로 비숙련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단순 조립 활동이나 상품 운반과 같은 작업들을 기계로 대체해왔다. 반면 제품 설계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이나 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진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학자 칼 폴라니 역시 '인간이 오랫동안 체화한 암묵적 추상적 지식은 컴퓨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없다'는 '폴라니 역설(Polanyi's Paradox)'을 주장해 이러한 기술 진보 현상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은 그동안의 기술 진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숙련공의 업무나 서비스업의 주요 작업들을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거나 정교한 부품을 제작하는 일을 인공지능이나 3D프린터가 사람을 대신하는 수준까지 개발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숙련 노동자들은 발전하는 기술과 대체가 아닌 보완적인 위치에 있어 기술의 진보는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이 상승해왔다. 반면 비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의 업무가 기계로 대체되면서 임금이 하락해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신기술의 진보는 숙련 노동자들 업무도 대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술 진보가 숙련 노동자들 임금을 전보다 더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자신의 업무가 기술과 보완적인 위치에 있는 숙련 업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사를 다 읽은 후 얼마나 이해했는지 OX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1. 로마 제국은 군인들에게 급여로 소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 )
2. '폴라니의 역설'은 첨단 기술의 진보가 기능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
3. 1990년대 우리나라의 기술 진보는 숙련 노동자들과 보완적인 위치에 있어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 )

▶정답 / 1. O 2. X 3. O



# 이자에 이자가 붙어 복덩이…
# '복리의 마법'을 알고 있나요?

## 경제용어 돋보기

▶엔젤투자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자금이 시급한 벤처기업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돈을 출자해주기 때문에 '천사(Angel)'라는 이름이 붙었다.

▶리버스 펀드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단기간 주가 하락기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나 개인이 매수·매도 타이밍을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로 기관투자가나 투자전문가들이 리스크 헤지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옐로칩

우량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을 말한다. 옐로칩은 대형 우량주인 블루칩에 비해 시가총액과 이익의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블루칩보다 주가가 낮아 주식을 구입할 때 가격 부담이 작고 유동물량이 많아 이익 개선 시 주가 상승의 기회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예주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1. 다음 중 교사의 질문에 올바르지 않은 답을 한 학생은?

- 교사: '이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A: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재화가 과소 생산되는 사례입니다.
- B: 기업이 오염 물질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배출하는 사례입니다.
- C: 기업이 시간당 생산성이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 D: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 E: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팔지 않기로 담합하는 사례입니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해설

위 글에서 교사가 지적하는 '이것'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시장실패의 사례로는 △독과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공공재의 과소생산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외부효과로 인한 재화의 비효율적 생산·소비 등이 있다. A와 B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 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며,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므로, A와 B는 교사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고 있다. D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과소 생산되는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E는 독과점 사례를 들고 있다. 한편, C가 사례로 든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 분배에 해당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③

2. 아래는 우리나라의 노동 상황에 따른 인구 분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세 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① 취업자 수가 늘면 고용률은 상승한다.
② 전업주부와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③ 실업자가 구직단념자로 전환되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④ 실업률이 하락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할 것이다.
⑤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되는 사람과 취업자에서 실업자가 되는 사람의 수가 같으면 실업률에 변화가 없다.

▶해설

국내 고용통계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수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면 고용률은 상승한다. 또한 전업주부·학생·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실업자가 구직단념자로 전환된다면 실업자 수는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증가하므로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다.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전환된 사람과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환된 사람의 수가 같으면 취업자와 실업자 수가 변동 없으므로 실업률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취업자로 전환돼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변화가 없고,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돼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다.

정답은 ④

3. 아래 〈표〉는 원금 100만원을 연 10%의 이자율로 저축했을 때, 이자계산 방식에 따른 기간별 이자 누적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단, 고정금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계산 방식에 따른 기간별 이자 누적액**

(단위=만원)

| 구분 | 1년 | 2년 | 3년 | - |
|---|---|---|---|---|
| (가) | 10.0 | 20.0 | 30.0 | - |
| (나) | 10.0 | 21.0 | 33.1 | - |

① (가)는 단리 계산법, (나)는 복리 계산법이다.
② 예치기간이 동일할 때 만기 시 원리금은 (가)보다 (나)가 더 많다.
③ 예치기간이 10년이면 (가)의 만기 이자 누적 금액은 100만원이다.
④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만기 시 (가)와 (나)의 금액 차이는 줄어든다.
⑤ (나)는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계산한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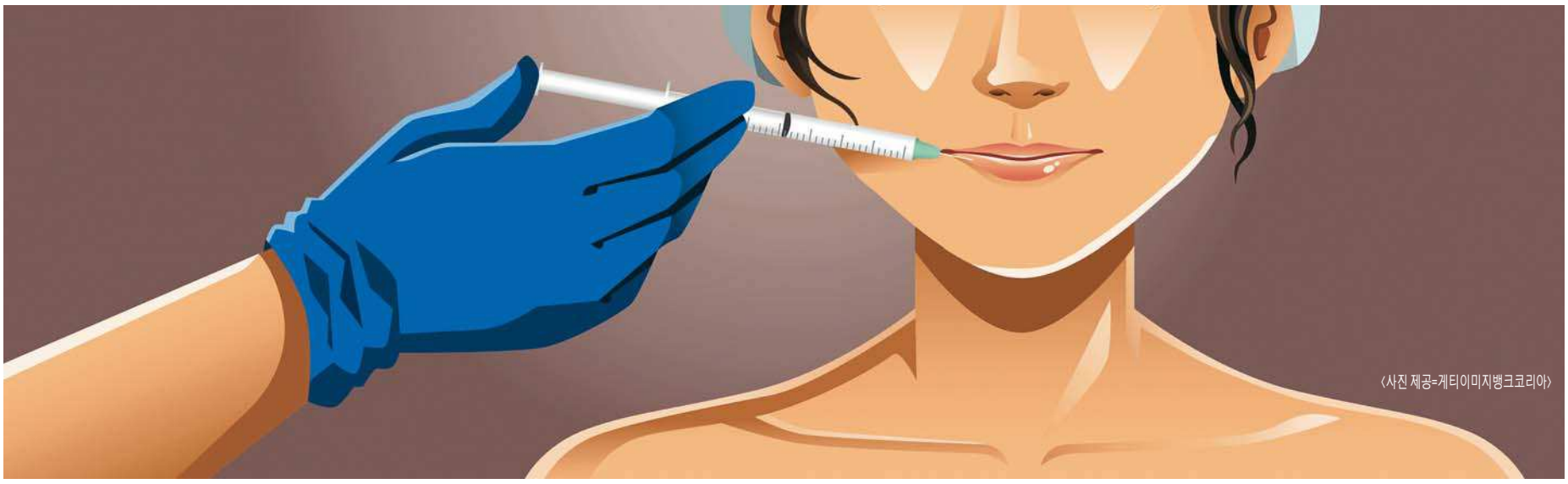
(가)는 단리 계산법, (나)는 복리 계산법이다.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되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율)의 이자가 발생한다. 복리법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원리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될 때마다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반복하여 발생한다. 즉, 처음 발생한 이자가 재투자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법은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커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복리의 효과'라고 한다. 문제와 같이 원금 100만원을 연 10%의 이자율로 10년 동안 저축할 경우 단리법에서는 200만원, 복리법에서는 259만4000원을 얻게 된다.

정답은 ④

최봉제·이인혜·박의환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 아하! 과학

## 무서운 독을 얼굴에? … 毒을 藥으로 쓰는 마법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으드득, 으드득.'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날 급하게 깨웠다. "엄마 이 좀 갈지 마." 부끄럽지만 그렇다. 이를 간다. 깨어 있을 때는 그렇게 소리를 내라고 해도 못 내는데 잘 때는 마치 소뼈 씹어먹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며칠 전 이가 시려 치과에 갔더니 어금니에 금이 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의사는 우선 깨진 이를 보호하기 위해 턱근육 힘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보톡스'를 추천했다. 남들은 피부에 있는 주름을 펴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맞는 보톡스를 이를 가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턱에 맞았다. '이를 갈게 되지도 않고 턱도 좀 갸름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어찌됐든 팔자에 없는 보톡스를 맞은 뒤 이후 몇 달 동안 이를 가는 습관을 잠시나마 없어졌다. 다만 고기를 씹기 힘들었고 그 좋아하는 '수다'도 오랫동안 떨기 힘들 정도로 턱 근육의 힘이 사라졌다.

보톡스는 생물독을 이용한 미용 치료제다.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독소를 정제한 것으로 운동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곳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근육 마비를 초래하는 물질이다. 중학교 생물 교과서에서 교감·부교감 신경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다. 1973년 미국 안과 의사 앨런 스코트가 원숭이 실험을 통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된 것을 보톡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뒤부터 활용되기 시작됐다.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어 안면 경련, 뇌성마비 등의 치료제로 사용을 시작한 이후 안과, 재활의학과에서 근육의 경련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이후 눈가, 이마, 미간 잔주름 등 얼굴 주름 개선과 사각턱을 축소를 위한 미용에 더 많이 이용돼왔다. 독이 약이 된 셈이다.

과학자들은 마법사와 같다. 이처럼 독을 약으로 바꿔 버린다. 뱀의 출혈독은 피를 멈출 수 없게 해 독을 온몸에 퍼지게 한다. 이를 역이용해 살모사로부터 정맥이 막혔을 때 쓰는 혈전증 치료제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살모사의 출혈독 성분이 뇌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이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병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형동물의 침샘에서 분리된 유해성분 '네레이스톡신'은 곤충을 마비시키는데 이를 이용해 '카르탑'이라는 이름의 합성 유도체가 제조돼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과학자들은 해양생물의 '독'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의 경우 특히 아열대화와 구로시오 해류로 인해 새로운 열대성 유독생물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미 국내 연안에서 적조를 야기하고 독성물질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독 미세조류'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새로운 조류와 생물이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에는 없던 '독'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점을 주목한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큰 만큼 이전에는 전혀 찾지 못했던 새로운 독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보톡스처럼 우리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청자고둥을 이용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청자고둥이 합성하는 생물독(코노톡신)의 신경운동계 적용 기작이 포유류에게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 아일랜드의 바이오테크 회사인 '엘란'은 마취·진통약을 개발해 2004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연구의 진행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김재일 박사 연구팀은 한국산 청자고둥의 코노톡신을 이용해 생체막 이온통로 기능제어물질 개발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적조를 유발하는 와편모조류(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진핵생물)에서 유래한 독은 마비독, 신경독 등 작용기전이 다양해 화학생물학, 약리학 및 의학분야에서 잠재적이고 흥미로운 생물공학적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1998년 이미 '와편모조류로부터의 의약품'이라는 혁신적인 짧은 총서에서 1970년께부터 시작된 와편모조류가 생성하는 화합물 연구에 대한 요약과 함께 대량 배양을 이용한 신약 제조의 가능성과 비록 공식적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는 없으나 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류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여전히 전임상 시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해 화합물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생화학적 메커니즘 규명 및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해양 조류를 이용한 신약 연구는 물질 확보를 위한 대량 배양과 같은 기술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명공학센터 이균우 박사 연구팀은 이러한 생물독의 활용을 위해 유기합성기술 및 생물대사공학분야를 이용해 해양독을 합성하는 것으로 생물독 활용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로 해양생물 독의 다양성이 늘어나리라는 불안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할수록 보톡스처럼 마법과 같은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양생물 독소가 제2의 보톡스로 등장할 날을 기다려본다.

한양대 BK21+해양융합과학기술인재양성팀 연구교수



원은지 교수의
생명과 과학

**근육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박테리아 독소 활용 '보톡스'**
**눈가·이마 등 주름 개선에 쓰여**

**과학자들, 해양생물에도 주목**
**청자고둥 독으로 진통제 개발**
**적조 생물서 암치료 길 찾아**

**용어**

**혈전증** :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인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

**전임상** :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

# 영화와 과학



원호섭 기자의
필름 사이언스



영화 '너의 결혼식'. 〈매경DB〉

## 영화 '너의 결혼식'

# 두근두근 내 인생… 잊지 못하는 첫사랑

액션도 없고, 화려한 CG도 없는 잔잔한 영화 '너의 결혼식'이 스크린을 달구고 있다. 한국의 달달한 로맨스 영화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끈 것 또한 실로 오랜만이다. 전형적인 첫사랑 영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첫사랑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공감도 하며 영화에 빠져든다. 왜 첫사랑은 잊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은 이성이 아닌 가슴으로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랑도 관찰한다. 다양한 실험과 데이터, 관측을 통해 사랑의 과정을 설명한다. 매몰찬 시도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는 실제 사랑을 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된다. 거꾸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농도는 감소한다. 사랑에 빠질수록 물불 안 가리고 상대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과 강박증에 걸린 환자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2010년 '성의학저널'에 실린 미국 시러큐스대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단 0.2초 만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뇌에서는 이미 사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이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0개월에 불과하다. 열정적인 사랑이 계속된다면 인간의 몸은 버틸 수 없다.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사랑은 가슴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오래된 연인일수록 자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잊을 만할 때가 되면 가슴 뛸 만한 이벤트와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20년이 넘어도 상대를 사랑하는 커플도 실제 존재한다. 사랑을 '호르몬'의 작용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1년 미국 스토니브룩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밝힌 결혼 21년차 커플의 뇌 영상 사진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커플은 안정감이 증가했으며 원활한 성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너의 결혼식'과 같은 영화에서는 항상 처음 본 이성의 모습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움직이며 머리를 울릴 정도의 충격과 함께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첫인상은 항상 중요하다. 2010년 미국 텍사스대 심리학과 베르트람 가브론스키 교수 연구진이 '실험심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총 164명의 대학원생(여성 118명, 남성 46명)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사람 얼굴을 보여주며 "이 사람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와 같은 부정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같은 사람 얼굴을 보여주며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헌혈을 합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설명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설명을 덧붙여도 부정적인 시각을 지우지 못했다. 반대로 긍정적인 설명을 먼저 보여준 실험 참가자들은 이후에 부정적인 설명을 보여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컸다. 얼굴 표정으로 첫인상 실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웃고 있는 사진을 처음 본 실험 참가자들은 이후에 화난 표정을 보여줘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우리 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 뇌는 편도체와 전두(전방) 대상피질(PCC) 부위가 먼저 활성화한다. 편도체는 시각, 후각, 청각 등으로 얻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고 PCC는 기억에 대한 감정에 관여하는 부위다. 우리 뇌는 처음 시각으로 얻은 정보를 PCC를 통해 뇌 깊숙이 기억으로 저장하면서 오랫동안 남겨둔다는 것이다.

첫인상으로 호감을 사는 데 성공했다면 약간의 '트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감정 환기의 잘못된 귀인현상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 몸은 흥분했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몸에 열이 난다. 이는 기쁠 때, 슬플 때,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과 동일하다. 만약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면 인간은 이것이 슬퍼서 그런 것인지, 기뻐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만나고 있는 이성과 공포영화나 멜로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영화 속 내용으로 가슴이 떨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화 때문인지 상대방 때문인지 자신은 알 수 없다.

많은 실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표적으로 1974년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진행한 흔들다리 효과 실험을 꼽을 수 있다. 연구진은 남성들이 흔들리는 다리와 단단한 다리를 건너게 했다. 다리 중간에서는 여성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다리를 건넌 뒤 남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흔들다리를 건넌 남성의 50%가 여성에게 설문조사를 핑계로 전화한 반면, 단단한 다리를 건넌 사람은 12.5%만이 전화를 했다. 흔들다리를 건너며 심박수가 높아진 남성들은 이 생리적 변화를 여성에 대한 호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공포영화를 보여주거나, 간단한 뜀뛰기로 심박수를 높인 뒤에 같은 실험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연애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기온이 떨어진 만큼 두 사람이 꼭 붙어 있어도 덥지 않다. 2018년 가을, 행복한 사랑을 하길 기원한다.

**용어**
- **도파민** : 뇌 분비 호르몬. 쾌락, 식욕, 성욕 등에 영향
- **세로토닌** : 뇌 분비 호르몬. 감정 조절, 행복 조절 등에 관여
- **귀인현상** : 사람들이 행위와 행위 결과의 원인을 추리하는 과정

이성에 호감 느끼는 순간
뇌에선 도파민 호르몬 분비
감정조절 세로토닌은 감소
사랑할수록 물불 안가리고
상대에게 집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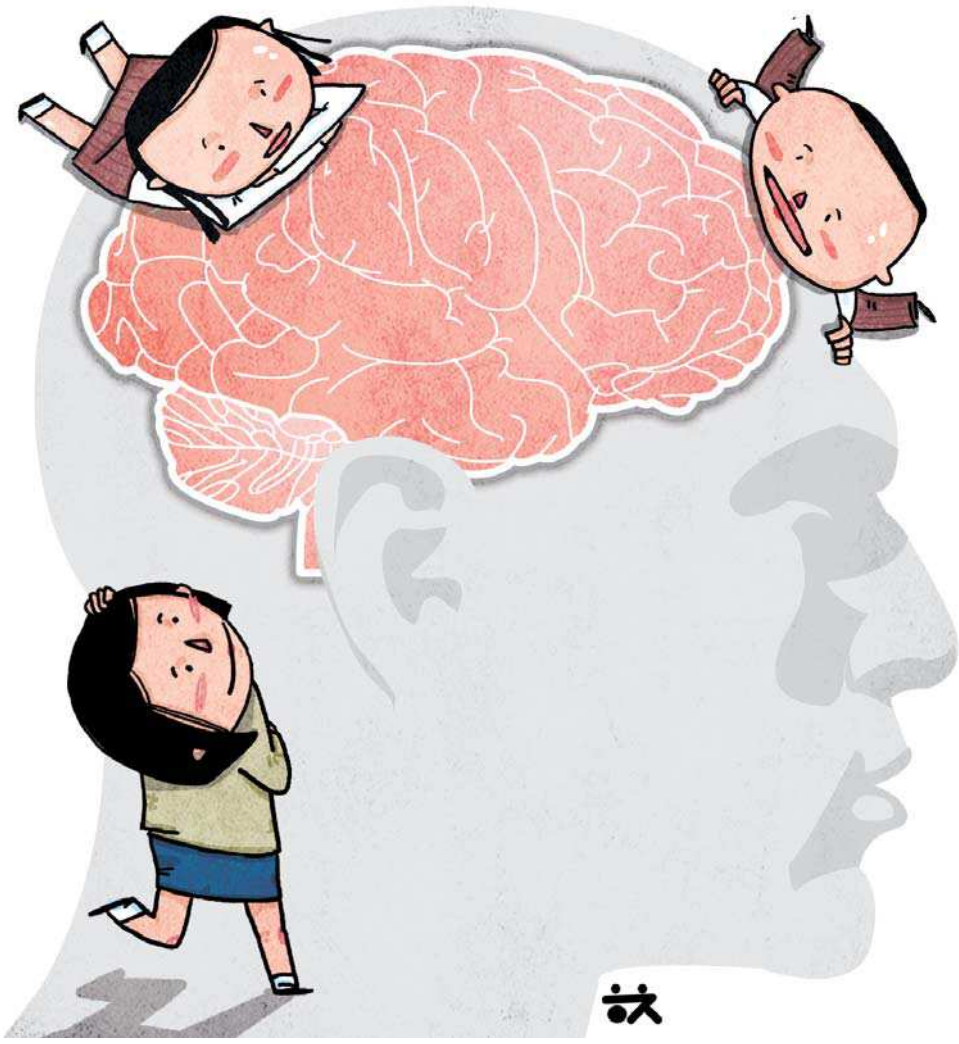
도파민 유효기간은 30개월
오래된 연인·부부일수록
가슴 뛸 이벤트로 사랑 확인

첫인상으로 호감 줬다면
감정환기 '귀인현상' 이용
상대방의 마음 얻을수 있어

연애하기 좋은 이 가을에
가슴 뛰는 인연 꼭 만나길

# 신비한 뇌

## 알면서 틀리는 문제 꼭 있죠? 해결책은 '뇌' 속에





안진훈 박사의
뇌성향과 학습

**①학년 오를수록 공부 잘하려면**

**우뇌성향 강한 한국의 아이들**
**시험때도 빨리빨리·대충대충…**

**1차원→2차원→3차원→n차원**
**생각의 차원 높이는 훈련 필요**

**스스로 자신의 생각 움직이는**
**사고력 엔진 두뇌에 깔아보자**

▶안진훈 박사는…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쳤다. 연세대 재학 시절 석학 한태동 박사에게서 10여 년에 걸쳐 동서양 사상사를 비롯해 현대수학, 물리학, 경제학, 예술 분야 등을 통해 인지구조 분석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를 뇌 과학과 연결해 독자적인 뇌 인지행동 분야를 개척했다. 뇌 교육 컨설팅 기업인 MSC브레인컨설팅그룹을 설립한 안 박사는 뇌 인지 모델에 기초해 뇌의 작동원리(BOS)를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의 뇌를 819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80% 정도가 우뇌성향이 강합니다. 이 아이들은 직관이 뛰어나서 무엇이든지 척 보고, 단번에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눈치가 있어서 판단력이 좋으며, 두뇌회전 역시 남다릅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아이들입니다. 문제는 생각하기를 귀찮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사고를 잘할 수 있는 사고력 엔진을 두뇌에 꼭 깔아주어야 합니다.

현재 우뇌성향의 교육, 즉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 머물러서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이트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뇌 개발이 필요합니다.

**◆왜 사고력의 엔진을 깔아주어야 할까?**

우뇌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학교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가 과목에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뻔히 아는 문제를 틀려 옵니다. 단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외부의 사물을 바라보는 뇌의 렌즈가 크다 보니 전체적인 패턴은 잘 보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대충 보고, 빨리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를 아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험에서 2자를 3자로, 6을 9로, +를 -로 잘못 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는 잘못 알아서 틀려 오는 경우입니다. 자기는 정답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정답은 4번인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자기 맘대로 읽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뇌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딴생각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읽을 때 자기 의도대로 읽는 경향이 강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도 실망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틀려 오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셋째로 아예 몰라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손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우뇌성향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원래 약합니다. 그 결과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풀려고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질려버려서 포기하고 맙니다.

**◆다차원 사고로 사고력 높여줘야**

우뇌성향 아이의 사고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고의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다차원적 사고 훈련을 시켜 보세요. 여기서 다차원적 사고(Multi-dimensional thinking)란 생각의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생각의 1차원 → 생각의 2차원 → 생각의 3차원 → 생각의 4차원 → … 생각의 n차원으로 말입니다.

생각의 차원을 높여 가는 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색으로 돼 있는지 아이에게 물었을 때 아이가 세상이 파랗다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아이가 세상이 파랗다고 한 것을 생각의 1차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세상이 파랗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질문합니다. 이때 반드시 세상이 원래 파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렌즈가 파래서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생각의 2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가 자신의 렌즈가 왜 파란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사고는 한 차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3차원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아이는 자신의 렌즈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파란 안경을 끼고 있고, 자기 민족이 파란 안경을 끼고 있으며, 자기 부모도 파란 안경을 끼고 있어 그 영향을 받아 자신도 파란 안경을 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생각의 차원을 계속 높여 가면 아이는 생각을 훨씬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어떤 대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항상 "왜?"라고 질문해 줌으로써 아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단계에 이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아이의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MSC브레인컨설팅그룹 대표

# 서울~부산 30분 '공간혁명'… 10년후 新문명 시작된다



이옥원의 미래 Insight

미래 insight는 변화의 물결을 담은 재미있는 미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탐색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미래의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지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보링컴퍼니'에서 기획한 '시카고 익스프레스 루프' 서비스는 지하에 터널을 뚫어 승객을 초고속으로 운송할 수 있다.

**◆ 도깨비 같은 세상, 마법의 문이 열린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를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도깨비가 여행을 떠날 때 선택했던 이동수단도 기억하는가? 도깨비인 공유는 캐나다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다가 뒤이어 캐나다 어느 도시 상점의 문을 열고 나타난다. 순간이동을 한 것이다. 불멸의 도깨비였기에 이 정도 능력은 속된 말로 '껌' 수준이다.

그런데 도깨비의 문을 보고 있으려니 자연스레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이 떠올랐다. 분홍색 문을 열고 나가면, 원하는 곳 어디로든 갈 수 있다니. 도라에몽처럼 '어디로든 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다.

올해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향 가는 길 극심한 교통 정체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순간이동에 대한 상상에 빠져보게 될 것이다. 순간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상상하고, 때로는 지하세계로 쑥 빠져 밀린 도로를 탈출하고 싶은 갈증과 상상을 꿈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쯤에서 자신의 상상을 멋쩍은 미소로 마감하며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에 SF 영화 속 미래 도시를 떠다니는 자동차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런데 이런 기상천외한 상상을 영화적 허구로 끝내지 않고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고 알려진 일론 머스크(1971년생·기업인)가 그 중심에 서 있다.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려는 목표로 스페이스X(SpaceX)를 설립했고, 테슬라모터스를 공동설립했다. 머스크는 그저 몽상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의 선봉장이자 미래의 설계자라고도 불리는 명망가이자 유수 기업의 CEO이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계적으로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머스크가 어느 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교통 체증이 나를 괴롭힌다. 난 터널 보링 머신(tunnel boring machine)을 만들 거야…. 그리고 파기 시작할 거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머스크는 보란 듯이 터널을 뚫는 회사 보링컴퍼니(The Boring Company)를 설립하고, LA 초고속 지하터널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리고 트윗을 올린 지 2년째인 올해 5월, LA 초고속 지하터널 프로젝트 1단계 구간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회사 스페이스X 주차장에서부터 LA국제공항까지 4.3㎞ 구간을 잇는 터널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것이다. 터널에는 진공열차인 '하이퍼루프'나 스케이트 형태의 전기차가 통과하게 되는데, 이미 시험 운행을 통해 시속 240㎞ 속도로 주행하는 시험 운행차가 1시간20분 걸리는 출퇴근 거리를 단 5분 만에 주파했다고 한다. 곧 일반 대중에게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람들에게 영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차 워싱턴DC와 뉴욕을 30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도 세우고 있다니 상상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티핑 포인트, 지금부터 10년 후 인류는 문명의 변곡점에 서게 된다.**

이처럼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근간에는 엄청나게 빠른 과학기술 혁신이 있다.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거리는 361㎞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390㎞와 비슷하다. 그 거리를 30분에 주파한다고 하면 대전쯤에서 보면 지나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 순간이동에 다름 아닌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그 밖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매초마다 최신 기술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무인자동차가 시범운행을 마쳤고 드론은 섬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 인공로봇 '소피아'는 세계를 돌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3D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들고 주택을 짓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영생을 넘어 영혼의 존재를 연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무인자동차 등등 엄청나게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시작되고 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첨단 기술**

| 영화(개봉 연도) | 등장 기술 |
|---|---|
|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 | 인공지능 : 우주탐사선 디스커버리호를 컨트롤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HAL9000'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정서적 감정 및 인지 능력까지 갖춘 강인공지능(strong AI) 기술이 적용 |
| 토탈리콜(1990) | 무인자동차 : 로봇 택시 '자니 캡(Johnny Cab)'은 로봇이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최적의 코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설계 |
| A.I.(2001) | 휴머노이드 로봇 :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감정까지 가지게 된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비드'는 본인이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 |
|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 미래형 디스플레이 : 수사관인 존 앤더튼은 촉각 디스플레이 장갑(Haptic Glove)을 끼고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모션으로 파일을 처리 |
| 아이, 로봇(2004) | 가정용 서비스 로봇 : 2035년, 인간을 위해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등 모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일상화된 사회 |
| 아이언맨(2008) | 증강현실 :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토니 스타크의 눈앞에는 주변 상황, 신체 상태, 적의 위치 등 현실 공간이 분석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 |
| 오블리언(2013) | 드론 : 외계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에서 약탈자들을 감시하고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무인정찰기 '드론'이 등장 |

※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2018)

**CEO 일론 머스크 신개념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개발 나서**

**이제껏 인류가 경험한 공간개념 완전히 변화 새문명의 전환점으로**

2015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는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기술들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어떤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급격하게 변화가 확산되는 지점)를 조사한 결과 다가오는 2027년까지 모두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기술혁신의 진행은 2028년 이후 우리들의 삶을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의 세계로 급속히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10년 후 인류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해본 세계가 펼쳐지는 문명의 변곡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는 공간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초지능화의 시대이자 초연결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청소년이여! 당신들이 살아갈 세상-어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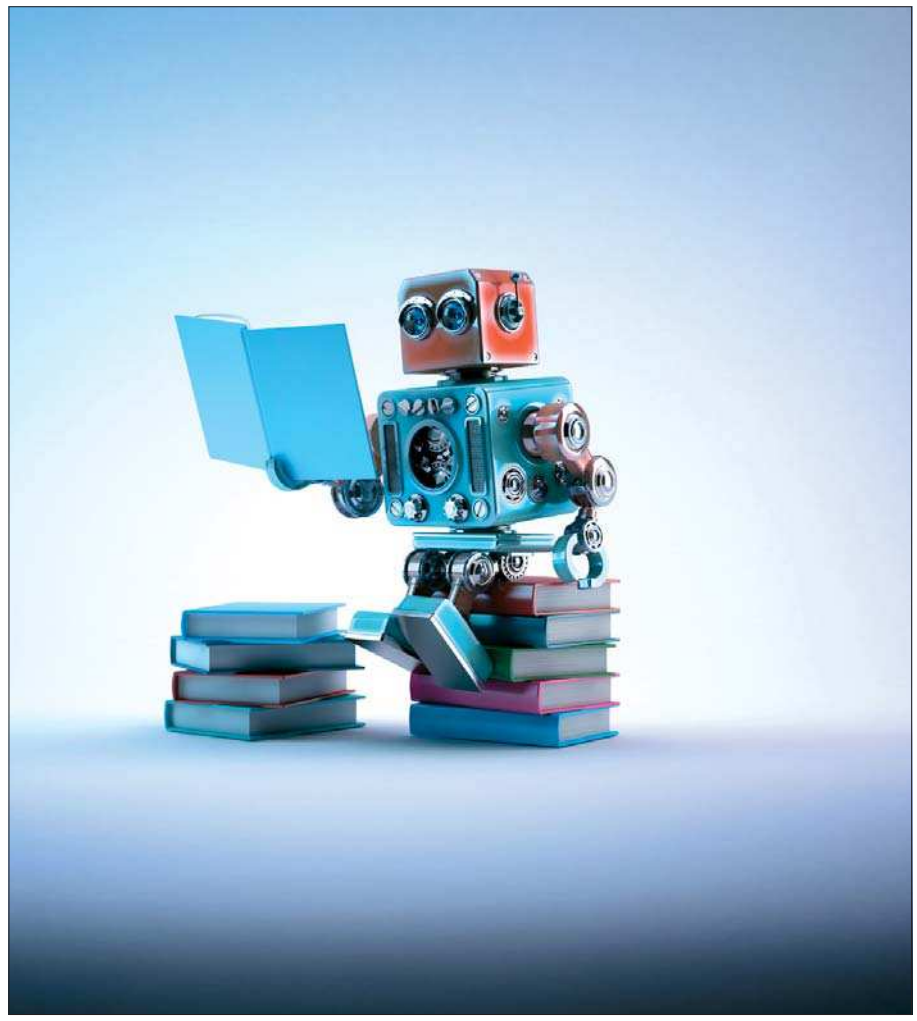
KB금융 공익재단 사무국장

# 멋진 신세계로 이끌 미래직업 7대 트렌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류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세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래사회의 트렌드를 정리한다.

**미래사회의 직업 7대 트렌드**

| 구분 | 직업 발전 |
|---|---|
| ❶초연결 초지능화 | 인공지능·지능형 로봇·사물인터넷·바이오기술·빅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의 성장 |
| ❷저출산 고령화 |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직업의 발전 |
| ❸글로벌화 | 수송·항공·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관련 직업 등 |
| ❹자원경쟁·지구온난화 | 재생에너지와 환경 관련 직업 |
| ❺소비의 고도화 | 건강, 미용, 오락,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등장 |
| ❻위험의 일상화 | 안전·보안 관련 산업과 직업의 성장 |
| ❼하이터치의 시대 | 예술·영상·오락·여행·식품 및 외식·콘텐츠 관련 직업의 발전 |



**직업의 전문화·세분화**
**돌봄서비스·행동치료사 등**
**고령화 따른 신직업 등장**

**업무의 융·복합화**
**정보통신·기존산업 결합**
**스마트팜·도시전문가 출현**

**비정형 업무의 발전**
**기계로 대체 힘든 감성업무**
**관련직업은 더 중요해질듯**

**직종·업종 경계의 불명확화**
**업계 표준·매뉴얼이 없는**
**새로운 직종 종사자 많아져**

### ◆미래사회의 트렌드와 미래직업

첫째, 초연결 초지능화의 트렌드이다.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은 직업세계를 크게 바꾸고 있다. 사람들의 고유영역이라고 믿었던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인공지능은 법률, 의료,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제조업, 농업 등 사회 전 분야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 궁극적으로 초연결사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은 환경, 약품, 의료, 에너지, 농어업 등을 크게 바꾸고 개인별 맞춤형 의료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화를 이끄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의 트렌드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진전으로 미래사회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직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글로벌화의 트렌드이다. 사람과 물자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교류하고 교환되는 글로벌화가 앞으로 더욱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국경선을 넘나드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글로벌화는 수송, 항공, 국제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의 산업과 관련 직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자원경쟁과 지구온난화의 트렌드이다. 세계는 자원전쟁을 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풍력 및 태양 발전 등에 필수적 재료인 희토류를 둘러싼 국가 간 획득 경쟁이 대표적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자원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전문직과 온실가스의 방출을 막는 데 기여하는 환경 관련 직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섯째, 소비의 고도화라는 트렌드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소득이 증대되면서 소비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 미용, 오락, 취미, 일상생활 등에서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여섯째, 위험의 일상화라는 트렌드이다. 산업규모가 커지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면서 생활은 풍족해지고 있지만, 그와 맞물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일상화는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은 보다 안전해지기를 원하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곱째, 하이터치 시대라는 트렌드이다. 고도의 첨단기술(하이테크)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외롭게 할 수 있다. 미래학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원하는 현상을 하이터치(high touch)라 부른다. 인간적인 접촉과 사람다운 따스함이 필요하고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예술, 영상, 오락, 여행, 식품 및 외식, 콘텐츠 산업 등 매우 다양하다.

### ◆미래직업의 변화 추세

미래사회에서는 직업의 변화 양상이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직업의 전문화, 세분화이다.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관련 분야의 직업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보건복지, 인공지능과 로봇, 에너지 등과 같이 앞으로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관련된 직업이 보다 나눠지고 전문적 직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놀이 및 행동치료사가 신직업으로 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의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은 독립적인 전문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둘째, 업무의 융·복합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세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업무가 융합되는 특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광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자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적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업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학뿐만 아니라 법학이나 경제학 관련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일컬어지는 최근의 변화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 분야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융합형 직업이 태동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농업과 결합하면서 스마트팜 구축가, 기존 도시와 결합하면서 스마트 도시 전문가라는 신직업이 출현했다. 또한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면서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라는 신직업이 나타났다.

셋째, 비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비정형(non-routine) 업무의 발전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기존 인간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도 가속화돼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계가 쉽게 학습하고 따라오기 힘든 비정형 업무는 사람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노동이냐, 육체노동이냐는 구별보다도 정형적 업무냐 비정형 업무냐가 직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정형화된 업무가 주된 업무인 직업의 일자리는 기계에 대체되는 반면에 비정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생존하고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직종 및 업종의 경계 불명확성이 심화될 것이다. 업종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고 있다. 본래 보험은 보험사가 담당했지만 지금은 은행창구에서도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른바 방카슈랑스인데, 이제는 증권사에서도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경계의 불확실성은 신직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건물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익스테리어 디자이너의 경우 업무 범위가 건물 본체까지인지 경비실, 분수대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 새로운 직종이나 업종은 업계의 표준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팀장

취업하고 싶다면, 실전 직무를 익혀라!

금융권 취업 金融圈 就業 FINANCIAL EMPLOYMENT

MK금융NCS
취업 프리패스

매일경제신문

취업행

제6회 시험일 : 2018년 10월 20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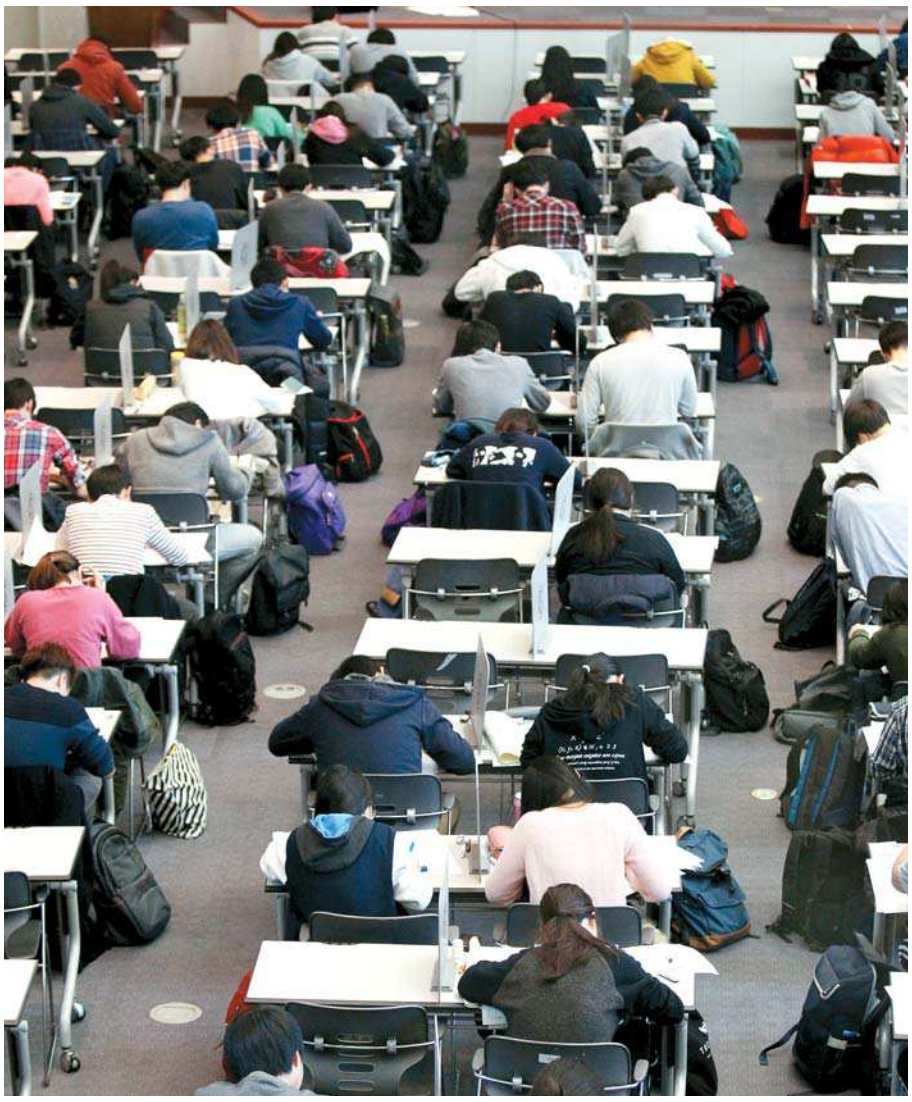
접수마감: 10월 14일(일) 자정

MK금융NCS 를 검색해보세요!

등록번호 : 2017-000429 | 자격명 : NCS금융역량인증시험(MK Finance NCS)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1급, 2급, 3급, 4급)
응시료 : 4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 연락처 : 02-2000-2754 | 홈페이지 : http://www.mkncs.org | 이메일 : mkncs@mktest.org

# 내신? 비교과 활동? 수시 지원 기준은 '모평 성적'

〈모의평가〉



## 2019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김경환 소장
행복한 3월 입시전략연구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 전형 원서접수도 코앞입니다. 고3 재학생들은 수능에 강한 졸업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시 전형을 피해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고3 재학생들이 올인하는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지원의 기준은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이 아닌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모평) 성적을 분석해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전형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수시는 전형이 다양하고 모집 인원도 많지만 자기소개서, 논술, 면접 등 준비해야 하는 요소도 많고, 변수도 매우 많습니다. 이에 비해 정시는 수시보다 모집 인원이 훨씬 적지만, 수능 성적 비중이 매우 높아 수시 전형보다 상대적으로 준비할 요소와 변수가 적습니다.

특히 모평 성적은 수시 지원 대학과 전형 선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이나 '연세대' '고려대' 등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2018학년도 '고려대 고교추천Ⅰ'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가장 낮은 3개 학과를 보면 인문계는 △보건과학대학(보건정책관리학부) 61.0% △미디어학부 70.8% △경영대학 74.4%며, 자연계는 △의과대학 34.8% △간호대학 57.1% △보건과학대학 63.6%입니다. 이에 미뤄볼 때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대학과 전형을 선정해야 합니다.

수시 지원은 총 6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시 전형에 지원하기 전 먼저 모평 성적을 분석해 정시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과 4월 평가(학평) 성적, 6월과 9월 모평 성적 추세를 분석해 수능 등급으로 예측해보고,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모평 성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다수 입시기관에서 가채점 결과에 따른 등급 컷을 공개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성적이 상승 추세에 있어 대학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면 학생부교과전형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탈락하는 지원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모평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지라도 합격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논술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시 전형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인데 역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이 수시 전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수시 전형 지원 시 모평 성적에 자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향 지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신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강점과 모의고사 성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고, 성적이 상향 추세라

**수시 전형 다양하고 많이 뽑아도**
**자소서·논술·면접 준비할것 많아**
**정시는 수능 비중 높고 변수 적어**

**'수능최저 미달' 탈락 의외로 많아**
**상위권 대학 노린다면 신경 써야**
**모평 성적 자신있으면 상향 4회**

면 상향 지원 4회, 적정 2회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반면 모평 성적 추세가 약하고, 성적 변화가 큰 수험생이라면 상향 지원을 2회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 지원 6장의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희망 대학의 면접, 논술 일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대의 경우는 면접 일정이 겹치는 대학이 매우 많고, 대학 대부분은 수능일 이후 논술과 면접 전형 일정을 잡아 일정이 중복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의 면접, 논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서 원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주요 대학 수시 전형방법 및 수능최저학력 기준**

| 대학 | 전형 | 전형방법(%) | 수능최저학력 기준 |
|---|---|---|---|
| 고려대 | 일반전형 | ·1단계: 서류 100(5배수)<br>·2단계: 1단계 70+면접 30 | 국, 수(가/나), 영, 탐(1) 중 4개 등급 합 6 |
| | 학교추천Ⅰ | ·1단계:학생부(교과)100(3배수)<br>·2단계: 면접 100 | 국, 수(가/나), 영, 탐(2) 중 3개 등급 합 6 |
| | 학교추천Ⅱ | ·1단계: 서류 100(5배수)<br>·2단계: 1단계 50+면접 50 | 국, 수(가/나), 영, 탐(2) 중 3개 등급 합 5 |
| 서울시립대 | 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 100 | ·인문: 국, 수(가/나), 영, 탐(1) 중 3개 등급 합 7<br>·자연: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등급 합 8 |
| 서울대 | 지역균형선발 | 서류평가+면접(종합평가) | 국, 수, 영, 탐(2) 중 3개 각 2 |
| 숙명여대 | 학업우수자 | 학생부(교과) 100 | ·인문: 국, 수(가/나), 영, 탐(1) 중 3개 등급 합 6<br>·자연: 국, 수(가),영, 과(1) 중 2개 등급 합 4 |
| 연세대 |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 ·1단계: 서류 100(일정배수)<br>·2단계: 1단계 70+면접 30 | 국, 수(가/나),탐(2) 중 2개 등급 합 4 및 영 2 이내(국제계열은 1) |
| 중앙대 | 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70+비교과(출결봉사) 30 | ·인문: 국, 수(가/나), 영, 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5<br>·자연(서울) :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등급 합 5<br>·자연(안성) : 국, 수(가), 영, 과(1) 중 2개 등급 합 5 |
| 한국외대 | 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 100 | 국, 수(가/나), 영, 사(2) 중 2개 등급 합 4 |
| 홍익대 | 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 100 | ·인문: 국, 수(가/나),영, 탐(1) 중 3개 등급 합 6<br>·자연: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등급 합 7 |

**주요 대학 논술전형일**

| 일자 | 대학 |
|---|---|
| 10. 6(토) | 서울시립대(인문), 한국기술교육대, 홍익대(자연) |
| 10. 7(일) | 가톨릭대(의예 제외), 서울시립대(자연), 성신여대, 홍익대(인문) |
| 10. 27(토) | 경기대 |
| 11. 17(토) | 가톨릭대(의예),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인문), 서강대(자연), 성균관대(인문), 숭실대, 연세대, 울산대(의예), 한양대 ERICA(자연) |
| 11. 18(일) | 경희대, 단국대(자연), 동국대, 서강대(인문), 성균관대(자연), 한양대 ERICA(인문) |
| 11. 23(금) | 연세대 원주 |
| 11. 24(토) | 경북대, 광운대(자연), 부산대, 서울여대, 세종대(인문), 숙명여대(자연), 중앙대(자연), 한국외대, 한양대(인문) |
| 11. 25(일) | 광운대(인문), 덕성여대, 세종대(자연), 숙명여대(인문), 이화여대, 중앙대(인문),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양대(자연) |

# 서울대가 주로 보는건 개념·원리 묶는 추론능력

##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구술 심층분석



이명우 수석컨설턴트
행복한 3월 입시전략연구소



### 서울대 일반전형 수능 최저 없어
### 제시문 기반으로 면접·구술 진행
### 모집단위 따라 영어·과학도 나와

### 자연계열은 정해진 답 요구 안해
### 풀이과정의 사고력·논리력 중시
### 단순 지식보다 논지 전개과정 봐

**◆'지역균형선발' vs '일반전형'…서울대 수시 전형 특징**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로 756명, '일반전형'으로 1742명을 선발합니다. '지역균형선발'은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며 사범대학은 여기에 교직 적성과 인성 면접을 포함합니다. 면접은 복수의 면접위원이 개별적으로 10분 정도 실시합니다. 고3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및 구술 성적으로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모집 단위에 따라 제시문의 내용과 제시문을 통해 묻는 문제의 내용은 다릅니다. 인문대는 복수의 인문학 지문을 제시하며 제시문의 독해·비교 능력과 사례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영어 지문과 한자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연과학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 화학·생명과학 등 과학 관련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모집 단위에 따라 주어지는 제시문의 내용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교과 과목들에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더해 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의 연습을 통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대 심층면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술면접'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추론 능력 길러야**

모집 단위에 따라 제시문이 다르게 출제됩니다.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영어 또는 한자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30~45분의 답변 준비시간이 주어지며 면접은 15분 정도 진행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답을 풀이해야 하는 논술고사와는 달리 면접관이 수험생마다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정답보다는 풀이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의 난도는 높지만 개념들은 고교 교육과정 내의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구술고사는 수험생의 인·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교과지식을 묻는 문항을 공동으로 출제합니다. 인문계열은 비교적 답변 방향이 일정하지만, 자연계열은 정해진 틀의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논리력 등 학업소양에 중점을 둔 평가가 이뤄집니다. 답변 과정에서 답이 틀렸을 때는 면접관이 고쳐주기도 하고 풀이 과정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질문은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질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범위에서 구성합니다. 또한 단순 지식보다는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습득 가능한 여러 개념과 원리를 유기적으로 추론해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설계합니다. 즉, 단순 암기식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교과의 개념과 지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부터 지금과 같은 유형과 방식의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수능 문제 풀이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 출제 의도 등을 파악해 사고력과 논리력 등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대 사회과학대 일반전형 기출문제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적인 논지를 설명하시오.

(가) 시력저하로 인해 글쓰기가 어려워진 니체는 타자기를 주문했다. 일단 타자 기술을 익히고 나니 눈을 감은 채 손가락 끝만으로도 글을 쓸 수 있었다. 머릿속 생각들을 다시 종이에 문자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기기는 그의 저술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 니체의 산문은 보다 축약되고 간결해졌다. 마치 일종의 불가사의한 힘을 통해 기계의 힘이 종이에 찍히는 단어로 옮겨가는 듯했다. 니체의 가까운 친구이자 작곡가인 쾨젤리츠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아마도 이 기기를 이용하면서 자네는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될 것이네. 음악과 언어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펜과 종이의 질에 의해 종종 좌우되곤 하지."

(나) 영국 연구자들은 택시 운전사들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기억보다 지도에 더 의존할수록 공간 파악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해부학적·기능적으로 확연히 변화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간의 생김새를 처리하는 부분이 쪼그라들지만 복잡하고 추상적인 시각 정보를 파악하는 부분은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의 확산을 계기로 공간을 추상화하는 사고능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위 문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인간의 사고능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하는지를 제시문을 토대로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적인 논지를 설명함으로써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제시문의 공통적인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는 논술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익숙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인간 뇌의 활동 산물인 인지·사고 등의 추상적 능력은 그것을 다루는 매체들(media)을 통해 발현되는 한편 이 도구들은 인간의 인지와 사고를 제어한다는 제시문 내용 역시 사회 교과나 읽기 수업을 통해 많이 접했던 내용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도구의 사용이 사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니체의 타자기 사용은 글쓰기에 영향을 주었고, (나)에서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택시 운전사들은 공간 추상화 사고능력이 발달됐으며, 뇌 구조 변화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시문을 통해 '도구의 사용이 사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강사 열전 스카이에듀 수학 강사 차영진

# 한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 뚫듯 100일 이상 포기않고 열공하면 수학성적 반드시 올라요

'수학에 미친 수학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터넷 강사가 있다. 그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왜 학생들이 그에게 '미쳤다'는 평가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냉장고에 빈틈없이 빼곡히 채워진 아이스크림 사진을 게시하고선 그래프의 좌표가 떠오른다고 하고, 계단오르기 운동을 위해 계단별 칼로리 소모량을 적어놓은 계단의 사진을 올리고선 등차수열이 떠오른다고 하는 '미친 선생님'은 스카이에듀의 수학강사 차영진 선생님이다.

7일 서울 강남구 스카이에듀 본사에서 만난 차 선생님은 매우 들뜬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그가 만들어낸 것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됐다. 그는 "'극한 라이브'에서 냈던 두 문제가 문장부터 수치까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나, 그것도 4점(점수 비중이 큰) 문제로 나와버렸다"며 "평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의도를 읽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특기인데 이번에 문자도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모의평가와 정확하게 일치한 문제를 내놨다고 하는 '극한 라이브'는 최근 그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매일 밤 11시(수학 나형)와 11시 30분(수학 가형) 생방송으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극한 라이브다. 평가원의 의도를 분석해 매일 새로운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의 풀이를 하는 방식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와 수강하지 않으면 유료로 수강을 해야 한다. 특히 100일 이상 출석체크를 하고 성실하게 수강한 학생에게는 총 1억원의 장학금까지 퍼주고 있으니 주목받을 만하다.

그가 이런 무료 강의를 내놓은 이유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라고 한다. 그는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의 90% 이상이 겪는 문제는 수학이 습관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하루에 30분짜리 강의를 10일 모으면 300분이지만 동일한 농도(집중력)로 300분을 학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100일 이상을 꾸준히 공부하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매일 문제를 만들어내는 극한의 노력을 나도 할 테니 너희(학생)들도 같이 공부하자는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극한 라이브는 수험생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밤 11시, 11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이지만 동시 접속자 수는 매번 수천 명을 넘나든다.



학창시절 연극반 활동하며
감동 함께 나눌때 가장 기뻐
수학 수업도 일종의 퍼포먼스
행복해지는 경험 주고싶어

유형별 출제경향 완벽 분석
외워야하는 공식 줄어들어
뭘 묻는지만 알면 풀 수 있어

매일밤 무료강의 생방송
여기서 출제했던 문제 중
9월 모의평가서 2개 나와

그의 수학 학습 지론은 '문제가 뭘 묻는지를 살펴라'이다. 문제가 뭘 묻는지만 살피고 그 내용을 공부하면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도 얼마든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본인이 수포자라고 해서 포기한 상태에서 머물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며 "수능 기출 문제를 더도 말고 2년치만 풀어보고 어떤 유형에 취약한지를 파악한 후 그 유형의 문제가 뭘 묻는지만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로 최근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꼽았다. 그는 "개정 교과과정 자체가 점점 외워야 하는 공식의 개수는 줄어들고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고 있다"며 "당장 예전 시험과 비교했을 때 집합 문제에서 원소 개수가 줄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시대 변화를 평가원이 매우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유형별 계산연습만 죽어라 해서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유형이 어떤 개념인지를 물어보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포자들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포기하곤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개념을 파악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며 "극한 라이브와 더불어 진행하는 '역전 49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 중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을 끌어올린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걸어다니는 평가원'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을 만큼 평가원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진 강사로 유명하다. 그는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평가원에 있다가 도망 나왔냐'는 말까지 한다"며 "결국 학생들에게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내가 유형별 개념은 다 분석해뒀으니 제발 따라와서 배워가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수학 역시 외국어 공부를 하듯이 개념만 익히면 문제를 읽어낼 수 있고, 문제만 읽어낼 수 있다면 고난도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강의를 올리는 극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수학강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차 선생님은 "학창시절부터의 목표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학을 통해 강의를 보는 학생들에게 수학수업이 행복해지고 학창시절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의 '좋은 영향'에 대한 신념을 볼 수 있는 대목은 그의 최종 학력이다. 특이하게도 그의 최종 학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대학원 수료다.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앞선 이력과는 사뭇 이질적이다. 그는 "과학고에 다니던 시절부터 연극반에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좋은 영향을 주자는 생각이 있었다"며 "공연을 보는 것도 일종의 효과에 의한 (영향) 전달이고, 수학 수업도 학생앞에서하는 퍼포먼스이자 지식 전달이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학에 미친 수학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수학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사진/김호영 기자

# 청소년들과의 농촌공동체 생생한 체험기



김슬기 기자의
Must Read



**감자가 맛있는 까닭**

서정홍 지음
창비 펴냄



**초등학교 중퇴후 닭을 치고 우리밀 붕어빵 구워 파는 그들의 일상은 詩로 옮겨**

**이 땅의 청소년들에 건네는 자연을 닮은 위로와 격려**

"제 이름은 정구륜이고/ 나이는 열다섯 살입니다./ 저는 닭장 주인입니다./ 날마다 닭장에 슬그머니 들어가/ 닭이 애써 낳은 달걀을 훔쳐서/ 먹고사는 도둑놈입니다." ('청년 농부 1' 중에서)

시골 청소년들의 하루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재미있는 시를 쓴 주인공은 누굴까. 서정홍 시인의 '감자가 맛있는 까닭'은 2015년부터 꾸준히 출간된 청소년시 시리즈 '창비청소년시선' 열여섯 번째 책으로 나왔다.

서정홍 시인은 경상남도 합천 황매산 기슭 작은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체활동을 한다. 그들과 농사도 같이 짓고, 함께 일을 하며 이야기도 나눈다. 그래서일까? 시집에 등장하는 정구륜, 김수연, 서한영교는 시인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 청소년들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닭을 치고, 면사무소 옆에 생긴 피자 가게를 걱정하며, 우리 밀 붕어빵을 구워 파는 등, 그들의 일상이 시가 되었다. 서정홍 시인은 62편의 시를 통해 농촌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도 자연을 닮은 위로와 격려를 건넨다.

"학교 앞에 나란히 붙은 현수막 두 개/ 김동수 군 서울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쌀값이 개 사료보다 싸다. 쌀값을 보장하라!/ 나는 자꾸 한쪽으로만 눈길이 간다." ('청년 농부 2')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닭이 "자기 닭인지 남의 닭인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어엿한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가 잔뜩 소개된다. 농촌 현실을 꿰뚫어 보기도 하면서 짐짓 어른들 흉내를 내 가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의젓하기도 하다.

유머러스한 시도 많고, 가슴이 찡해지는 시도 많다. 일하는 사람이 글을 써야 세상이 참되게 바뀐다는 믿음으로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꾸준히 실천해 온 시인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시집 곳곳에 녹아 있다.

시인의 말에 서정홍 시인은 이렇게 썼다. "이 시집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그 무엇'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까닭도 없이 울고 싶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 바쁜 걸음 멈추고 잠시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이면 둘레가 환하게 보일 테니까요. 그리하여 시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임윤희 장학사의
**교육현장 이야기**

# 산양 '스프링복'처럼 무작정 달리는건 아닌지…

아프리카에 '스프링복(springbok)'이라는 산양이 있다. 이들은 수천 마리씩 떼 지어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몰사하는 어리석은 양으로 유명하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은 풀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거나 발로 밟아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의 양을 밀기 시작한다.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의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뛰게 된다.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 때문에 앞의 양이 뛰면 뒤의 양도 앞의 양을 따라 뛰게 된다. 결국 벼랑 끝까지 가서도 멈추지를 못하게 된 양들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안타까운 것은 스프링복은 자신이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른 채 뛰었다는 것이다.

30대 때 나의 여행도 스프링복과 같았다. 남들과 다른 패턴의 여행을 꿈꾸다가도 결국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보는 것이 실수가 덜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주요 관광지 위주로 인증샷을 남겼다. 여행을 가서도 '남들이 추천하니까' '랜드마크라니까' '맛집이라니까'라는 이유로 방문지를 선택한 것이다. 내 일상도 그랬다. 주변에서 누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아닌 척하면서도 어느새 그것을 따라 하고 있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단 속에서 나 혼자 튀거나 도태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재작년 첫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다. 택시기사를 가이드 삼아 이틀 동안 관광지 위주로 찾아가서 사진 찍고 바로 돌아서서 다른 관광지로 이동했다. 너무 지친 우리들은 마지막 날 모든 관광 일정을 포기하고 호캉스를 하기로 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식을 먹고, 간식으로 편의점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은 후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호텔 옥상 수영장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낸 후 귀가했다. 제주도까지 와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2년이 지나 제주도 여행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를 묻자, 초등학생인 아들내미는 마지막날 호텔에서 컵라면 먹고 수영한 것을 꼽는다. 관광지를 여러 군데 들르느라 아무런 대화도 없이 바쁘게 움직일 때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여행을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참맛과 참멋을 음미하지 못하고 바쁘게 그 지점에 눈도장을 찍고 그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속도를 내지 않았나 싶다. 남들과 다를까봐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여도 걱정하지 말자. 인간은 원래 다 다르다.

아들내미도 조금 다르게 키우고 싶다. '아이가 크면 달라질 걸?' '성적 나오고 나면 그런 말 못할 걸?' 하고 주변에서 애정 어린(?) 조언을 해준다. 정말 지금 내가 가진 소신대로 아이를 계속 키울지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물어가며,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며 살아갈 것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스프링복처럼 무작정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 ‘낯선’ 경제를 ‘친숙한’ 친구로 바라볼 수 있게

**틴매일경제 제15기 학생기자**

틴매일경제(틴매경) 제15기 학생기자 활동이 시작됐다.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소식을 전할 37명의 학생기자가 독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열정에 찬 그들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보자.




▶강지영(천안백석중 2)
사람들을 취재하고 사회 전 분야를 평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라는 직업을 매우 동경해 왔다. 금융, 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사를 쓰고 싶다.

▶곽영래(서울여상 2)
독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쓸 것이다. 독자의 의견에 공감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자가 돼 독자들이 금융과 경제에 쉽게 접근하게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겠다.

▶권용빈(소하고 2)
편향된 기사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쓸 것이다. 미디어 매체가 흘러넘치는 사회에서 기자가 무엇보다 중요시할 것은 진실함과 정확성을 가진 전문적인 기사 작성이다. 알차고 진실된 기사로 독자들을 찾아가겠다.

▶권지민(현대청운고 2)
사회 이슈에 대한 어른들의 관점에 지친 청소년 독자들에게 학생기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소식을 전할 것이다. 또 학교의 많은 특성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취재해 다른 학교 동아리들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하겠다.

▶김동선(태전고 1)
기자 활동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성실함을 잃지 않겠다는 ‘일편단심(一片丹心)’의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겠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는 말이 있듯이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겠다.

▶김민서(원주금융회계고 2)
독자를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겠다. 편견에 빠져 살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를 쓸 것이다.

▶김석환(서울신양중 3)
‘바른 등불’이 돼 사회 이슈를 잘 모르는 학생들의 눈을 밝히고 싶다. 어려운 신문을 학생들이 읽기 쉽게 하여 학생 언론 문화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

▶김아라(대성여상 2)
경제와 금융 분야를 어렵게만 생각하여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다양한 방면에서 기자라는 본분에 맞게 책임감을 다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 노력해 발전하는 학생기자가 되겠다.

▶김하은(광주여상 3)
독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자로 성장하고 싶다. 아울러 독자들과 같은 사회 한 지점에 서 있는 학생으로서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정보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세진(광주중앙고 2)
학생기자의 시각으로 10대에게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실만을 전달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기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는 속담이 있듯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한 발 더 나아가겠다.

▶박수현(대구제일여상 2)
신문에 내 이름을 건 기사가 올라가기에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쓴 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도 된다. 차근차근 배우면서 땀과 열정으로 취재하고 진실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겠다.

▶박유빈(대성여상 2)
기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과 지식을 알려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정확한 정보를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사를 쓰겠다. 다가가기 힘들었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박태준(세종국제고 1)
신문은 새 소식을 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설 등을 통해 독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여겨 기사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 이번 학생기자 활동을 통해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배효성(대구외고 2)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소개로 처음 맞이했던 학생기자 활동을 세 번째로 하게 돼 영광이다. 많은 현장 방문과 기사 작성 과정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시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줬던 이 활동을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송경은(부산진여상 3)
학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본 사회를 공유하고 싶다. 또한 같은 학생 독자들에게 사회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정보통이 되고 싶다. 이번 15기 학생기자 활동으로 더욱 성장해 발전된 기사를 쓰고 싶다.

▶송민영(광주광남중 2)
‘성실함’과 ‘끈기’를 무기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기자가 되겠다. ‘틴매일경제’ 이름에 걸맞은 성실한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안다희(분당영덕여고 2)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고 싶다. 경제신문이 처음엔 다가가기 힘들고 읽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틴매경 기사로 청소년들이 경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민주(춘천여고 2)
틴매경 기자활동은 내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

▶양우진(이매고 1)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다. 느리기는 하되 꾸준히 하면 믿음직스럽다는 말이다. 이처럼 꾸준히 경제 현상을 관찰하고, 메모하고, 공부하여 황소걸음처럼 믿음직스러운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회 곳곳 발로뛰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 전할 것


안민주 양우진 양채원 엄지원 염희선 이다은 이도겸
이성한 이소연 이수민 이수현 이시현 이진서 이현우
임기준 장윤형 전해영 정연희 조엘림 최현정

**틴매일경제 제15기 학생기자**

▶양채원(이매중 2)
신문 기사가 학생들과 낯선 주제들 사이의 매개체가 되어준다는 사실이 좋아 지원했다. 사회문제와 경제가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려워 보이는 주제에 쉽게 다가가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

▶엄지원(대원외고 2)
동아리 활동을 하며 경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경제·경영 이슈를 탐색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신선하고 재미있는 기사들을 써보고 싶다. 틴매경기자 활동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찾아나가고 싶다.

▶염희선(창문여고 1)
이번으로 활동은 세 번째다. 지금까지 틴매경 기자단 활동을 하며 학생 신분으로 내 생각과 주변의 여러 이슈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 이슈들을 소개하겠다.

▶이다은(대전여상 2)
14기 기자활동을 하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과 뉴스로만 보던 기사들을 직접 생각하고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이번 학기에는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사를 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도겸(명덕외고 2)
아침에 배달된 빳빳한 신문의 질감과 잉크 냄새가 좋아 시작한 학생기자 생활이 세 학기째로 접어들었다. 학생기자 활동을 하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앞으로도 한 학기 동안 더욱 열심히 뛰며 공부할 것이다.

▶이성한(온산고 2)
주위 사람들에게 활자 매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신문의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된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나의 기사가 여러 사람에게 유익함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이소연(천안여상 2)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또 내가 써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주의 깊게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수민(대전신일여고 2)
학생기자였던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기사를 보며 나도 기사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기자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수현(대전신일여고 2)
이전 틴매경 기자 친구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추천을 받았고 학생으로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신청했다. 틴매경 기자가 된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더불어 금융, 경제 분야 기사를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쓸 것이다.

▶이시현(광휘고 2)
경영의 성공을 도모하는 데 HR는 핵심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HR 관련된 기사를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고 싶다. 조직의 우수 사례와 과정을 조사하고 평가하면서 HR 용어가 어색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다. 이번 틴매일경제 기자 활동은 내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진서(광주광남중 3)
매일경제 신문을 읽는 것이 많은 배경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엔 학생기자가 돼 10대가 관심을 갖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쉽지 않은 기회인 만큼 후회 없는 한 학기를 틴 기자단과 함께 보내겠다.

▶이현우(경기광주고 2)
평소에 뉴스 신문 기사에 관심이 많아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에 내가 쓴 기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과 배경지식을 책과 뉴스를 보며 키워나갈 것이다.

▶임기준(하나고 1)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돈은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주된 원동력이 됐다. 이제 경제를 모르고는 국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낯선 경제를 '친숙한 친구'로 바라보도록 경제 기사를 최대한 쉽고 간단히 풀어 쓰겠다.

▶장윤형(서울여상 2)
금융·경제 기사를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작성해 '경제는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 학생기자 활동이 견문을 넓히고 금융·경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해영(대전신일여고 2)
틴매경 학생기자였던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산업 현장을 취재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 도전했다. 사회 이슈에 대한 뚜렷한 나의 생각을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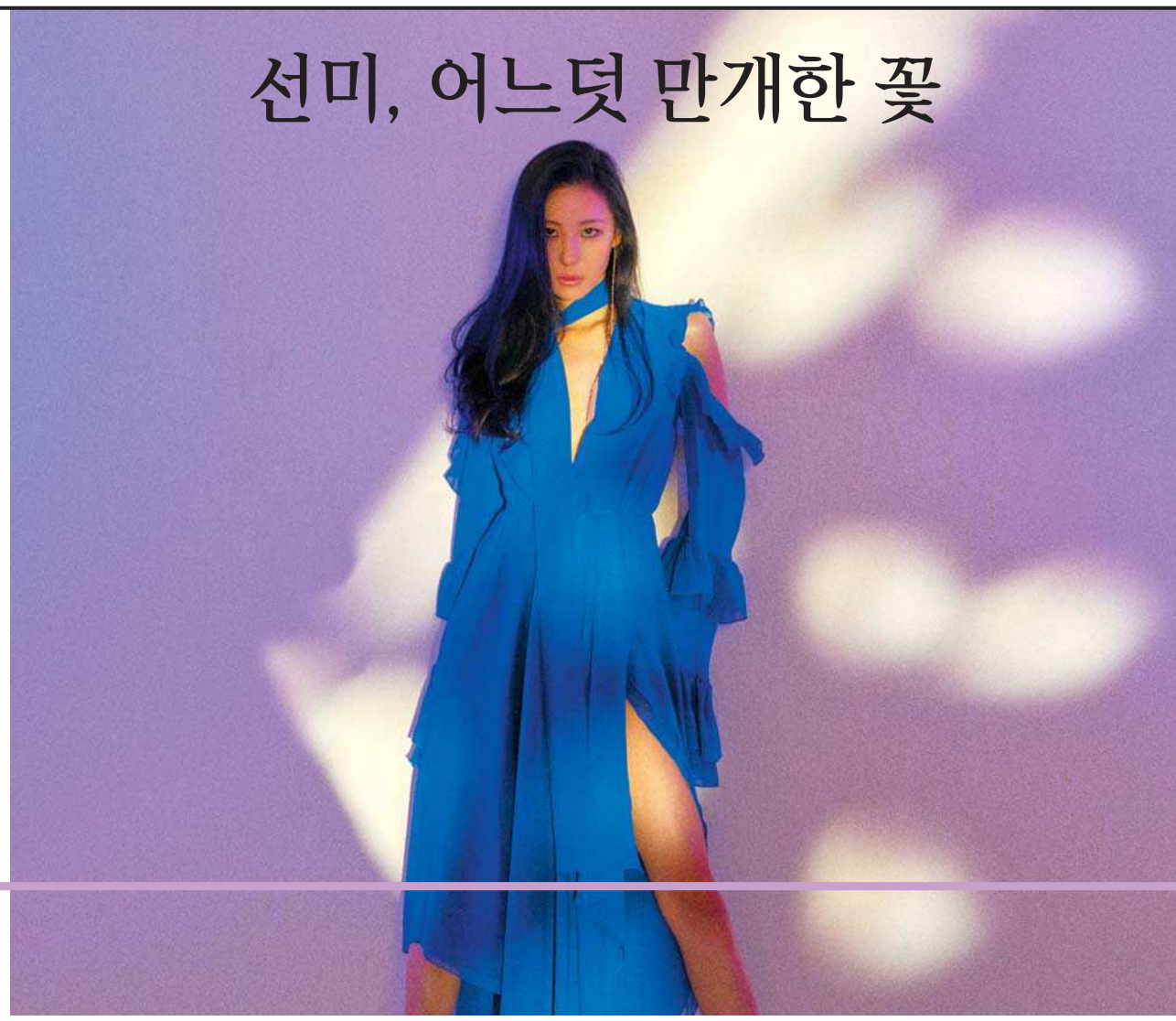
▶정연희(부산진여상 1)
신문기사를 자세히 파헤쳐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가사를 우리의 일상과 연관시켜 풀어나가 독자들이 공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겠다.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사실만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다.

▶조엘림(일신여상 2)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소식과 우리 경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 틴매경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겠다.

▶최현정(대전여상 3)
14기 틴매일경제 학생기자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이 많았다. 금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관련 지식도 넓어졌다. 15기 학생기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싶다.

장동익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인턴 정리

# 선미, 어느덧 만개한 꽃



**히트곡 '텔미'로 인기 누렸지만**
**건강 이유로 원더걸스 활동 중단**
**3년 공백기 후 솔로로 컴백**
**'24시간이 모자라'로 제2전성기**

**작년 '가시나'로 음원차트 점령**
**카리스마 강한 퍼포먼스 극찬**
**무대 밖에선 털털한 매력**
**이달 출시한 미니앨범도 인기**

선미는 '여시'다. 선을 넘지 않는 파격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톡톡 튀는 발랄함에 은근한 귀여움까지 스며 있는 그의 매력은 한마디로 '팔색조'다. 데뷔 후 10년 넘게 활동 중인 선미는 어느덧 스물일곱 살의 성숙한 '여성'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 기억 속에 '원더걸스 막내'로 기억되고 있는 만큼 홀로서기 후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울 정도다. "선미가 장르가 되는" 원대한 꿈을 향한 긴 항해에 나선 선미. 8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어엿한 '아티스트' 선미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원더걸스 선미'와 '솔로 선미'를 넘나들다**

선미는 2007년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해 '텔 미'로 팀의 전성기를 함께 했다. 이어진 '소 핫' '노바디'까지 메가 히트를 이어간 원더걸스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다져온 그는 원더걸스 미국 활동까지 함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2010년 활동을 중단해 학업에 매진했다.

5년 뒤인 2015년, 다시 '원더걸스 선미'로도 돌아왔지만 그에 앞서 솔로 가수로 깜짝 컴백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남겼다. 2013년 8월, 솔로곡 '24시간이 모자라'가 솔로 선미의 시작점이다. 당시 소속사이던 JYP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박진영이 박지윤 이후 13년 만에 내놓은 여성 솔로 댄스가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된 것. 당시 똑떨어지는 단발머리에 각선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살구색 의상을 입고 '맨발의 디바'로 돌아온 선미가 보여준 파격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독특한 분위기와 퍼포먼스로 솔로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선미는 2014년 2월 내놓은 미니앨범 '풀 문' 타이틀곡 '보름달'을 통해 보란듯 솔로 2연타에 성공했다. 고혹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섹시의 진수를 선보인 선미는 다시 한 번 '솔로 선미'의 이름을 대중에 각인시켰다.

2015년 원더걸스로 돌아온 선미는 여전히 막내였지만 솔로 활동 경험과 잠재된 재능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증명했다. 밴드 콘셉트로 탈바꿈한 원더걸스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연습기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급 베이스 연주를 선보이는가 하면 2016년 원더걸스 싱글 '와이 소 론리'의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선미 시대' 열렸다**

원더걸스는 2017년 굿바이 싱글 '그려줘'를 끝으로 10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선미는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에 안착해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 8월 내놓은 '가시나'가 음원차트와 음악방송을 한 달 넘게 장악하는 역대급 성적표를 기록하며 본격 '선미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파격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퍼포먼스가 주효했다. 무대 위 카리스마와 달리 예능에서는 털털하면서도 4차원적 매력으로 친근함을 더했다. 다소 마른 몸매에서 나오는 완벽한 의상핏은 여성들의 '워너비'였다.

올해 1월 내놓은 '주인공'은 '가시나'를 넘어설 정도의 파급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한층 스케일이 커진 선미표 퍼포먼스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을 들었다. 애석하게도 해당 곡과 뮤직비디오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활동은 일찍 접어야 했지만 선미의 또 한 번의 성장을 발견하기에 충분했다.

퍼포먼스 면에서 성장도 돋보였지만 그의 업이 가수인 만큼 선미의 음악적 성장세는 더욱 기특하다. 원더걸스 시절부터 작사·작곡에 다수 참여하며 송라이팅이 가능한 댄스가수로 거듭났다.

**◆선미, 다음이 더 기대되는 이유**

지난 4일 공개된 미니앨범 '워닝'은 현시점 선미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총집합시킨 결정판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페셜 에디션 '가시나'와 '가시나'의 프리퀄로서 '주인공'을 잇는 3부작 프로젝트의 마무리이자 그 완성인 앨범으로 3연타에 성공했다.

선미는 이번 앨범 타이틀곡 '사이렌'에도 작사·공동 작곡으로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렸다. '사이렌'뿐만 아니라 '어딕트' '블랙 펄' '비밀테이프' '곡선' 등 전 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음악적 열정을 뽐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자신만의 색을 구축한 선미. 어느새 '원톱 퀸'을 꿈꾸고 있는 선미는 정말이지, 못 말리는 '여시'다. 선미는 "이번 앨범으로 선미라는 가수가 가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 3부작이 선미라는 장르를 구축하는 데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박세연 매경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 제공=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 개성상인에게 배우는 교훈…"신용이 자본이다"







'신용이 자본이다'라는 말이 있다. '신용'이란 현재의 행위에서 미뤄보아 앞으로도 약속이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본인이 거래한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쉽게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화목해지고 심리적, 경제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경제생활에서 매매나 고용 등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급일을 뒷날로 정하는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불필요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고 거래비용도 절감하게 한다. 이처럼 신용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경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엄청난 금전적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신용은 곧 자본이 된다.

무역에 있어서도 신용도는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 거래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이고, 물품 생산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많은 나라들이 그 국가와 기꺼이 거래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국가의 제품을 선호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등의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거래부터 국가간 무역까지**
**신용도 높을수록 거래비용 줄어**

**고려·조선시대 활동한 개성상인**
**중국·일본과 국제무역 주도**

**자산 이동·손실 꼼꼼히 기록해**
**신용 기초 금융기법 발달 시켜**

'신용이 자본'임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는 개성상인을 들 수 있다. 개성상인은 고려·조선시대에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과 국제교역을 담당했다. 그들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부터 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갔다. 개성상인이 오늘날에도 널리 회자되는 것은 그들의 투철한 상혼과 '사개다리 치부' 때문이다. '사개다리 치부'란 옛날부터 개성에서 발달한 복식부기의 일종이다. '복식부기'란 거래를 할 때마다 대변과 차변을 분개해 재산 및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빠짐없이 치부할 수 있도록 과목을 나눠 각각의 계좌를 설정해 조직적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처럼 장부에 과목을 정해놓고 대변과 차변을 구별해 금전이나 물품의 출납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산의 이동은 물론 손실과 이익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는지 자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개성상인들은 신용에 기초한 금융거래 기법을 발달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상업관행을 정착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개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금속화폐가 유통된 지역이었다. 1678년 상평통보가 주조·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개성에서는 구리나 철 덩어리가 화폐로 유통됐다. 또한 상업이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개성에서의 대부분 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도 활성화됐다. 식품이나 옷 가게에서도 1년 동안 거래된 액수를 연말에 한 번, 혹은 7월과 12월의 2회에 나눠 대금을 치르는 것이 보편적인 거래관행이었다. 이와 같이 개성상인들의 경영 비법은 각종 상거래 관습의 합리적 운영을 이끌었고, 그들의 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자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적극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공=KB금융공익재단

# 남이 장에 간다니까 거름 지고 나선다… '밴드왜건 효과'

**속담으로 보는 경제**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선다'라는 속담은 자기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자기는 시장에 가서 사거나 팔 물건이 없는데도 남이 가니까 괜히 따라 가는 것, 분위기에 젖어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남들이 많이 사니까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한다.

한 소비자가 어떤 물건(재화)을 살 때는 다른 소비자들이 그것을 많이 구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비를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에 의한 소비라고 한다. 밴드왜건은 선두에 있는 악대 차, 우세한 세력,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 유행 등을 뜻한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처음으로 팔 때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소비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재화를 소비한다든가, 많은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었다는 이유로 팬들이 그 옷이 자신에게 어울리든 말든 사는 것도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밴드왜건 효과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한다.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이러한 소비심리를 잘 이용한다면 판매는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6-16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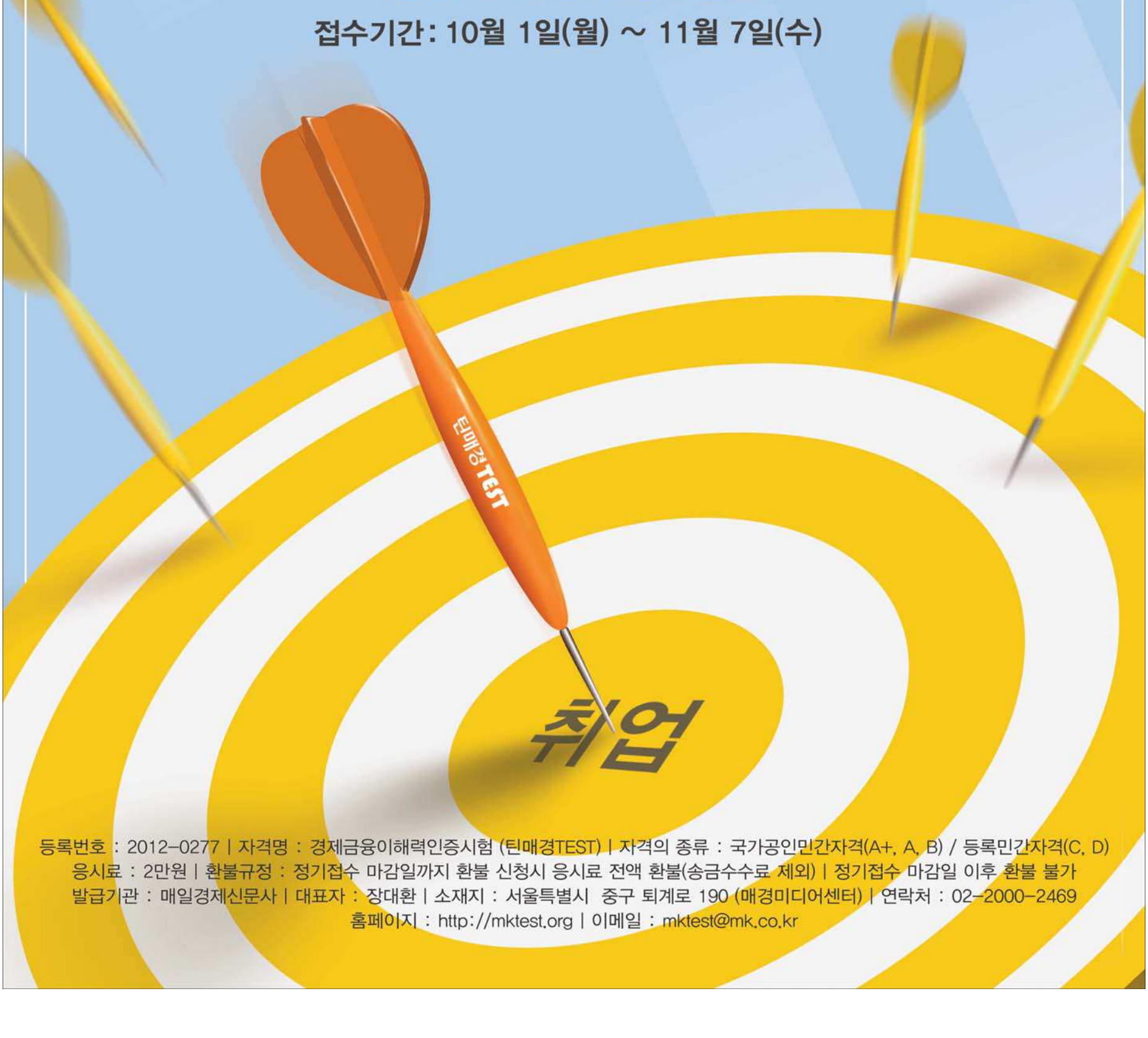
취업공략 백발백중!

국가공인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 틴매경 TEST

시험일 : 2018년 11월 17일(토)

접수기간 : 10월 1일(월) ~ 11월 7일(수)




등록번호 : 2012-0277 |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 A, B) / 등록민간자격(C, 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 연락처 : 02-2000-2469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